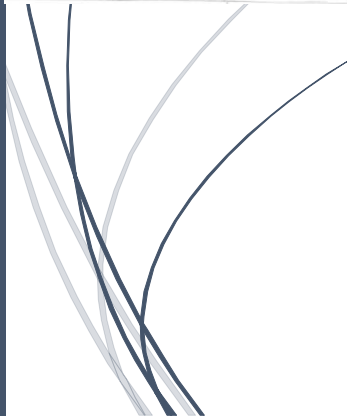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는

새벽이슬 제자들에게 (히브리서 10:13)



결정된 영원한 사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흠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찌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19:23-25)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계 7:4)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 7:9)

주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via 데보라, 기도중에 적은 노트

세미한 소리를 듣는자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와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상 19:9)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상 19:12-13)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전 5:16-19)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
새벽이슬들의 묵상, 세미한 음성 노트



**“내 어린양을
먹이라”**

노트 1-36



“내 양을 치라”

노트 37-65



“내 양을 먹이라”

노트 66-98



이슬노트점검

노트 90-126



“나를 따르라”

노트 1-420

리더들의 세미한
음성 노트 묵상

조희도 화백 - 예수그리스도

Contents

A 믿음	24
1) 믿음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26
1 믿음의 신비	26
2 믿음의 비밀	27
3 믿음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28
2) 열린 마음, 하나님을 만난 흔적	29
4 나의 것을 내려놓고	29
5 마음 문을 열고	30
6 말씀을 믿을 때	31
7 청결함으로	32
8 말씀 안에서	33
9 최선을 다 할 때	34
3) 믿음을 배우라	35
10 믿음이 믿음으로 인도한다	35
11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36
12 온전한 믿음을 배우라	37
13 아브라함의 믿음	38
14 예수의 걸음을 멈춘 바디매오의 믿음	39
4) 믿음으로 이루는 것	40
15 믿음으로 이루는 것 (히 11)	40
16 믿음은 수고가 아닌 순종이다	41
17 믿음은 노력이 아닌 순종이다	42
18 의심이나 변명 없이 순종하라	43
5) 믿음으로 꿈을 이루라	44
19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44
20 믿음의 광야 훈련이 필요한 이유	45

21 죽어가는 것, 잃어버릴 것	46
22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란다	47
23 믿음의 반석 위에 첫사랑을 회복	48
24 원인을 보라	49
6) 때가 이르면 믿음이 열매로	50
25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	50
26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달리라	51
27 요셉의 믿음과 꿈	52
28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 비전을 이룬다	53

B 기도 **54**

1) 첫사랑 회복의 기도	55
29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55
30 첫사랑을 새롭게 하는 기도	56
31 기도의 태도	57
32 기도의 향기	58
33 알곡의 기도를	59
34 항상 기도하라	60
35 매일의 신앙 고백 기도	61
2) 기도의 응답으로	62
36 오늘 기도와 믿음으로 심어라	62
37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	63
38 성장을 위한 기도	64
39 곤경을 지날때	65
40 소망을 위한 기도	66
41 물질의 필요를 위한 기도	67
42 능력과 사랑을 위한 기도	68
43 기도의 잔이 넘칠 때	69
3) 기도-말씀이 이루어지이다	70

44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기도	70
45 말씀 보존	71
46 선교지를 위한 기도	72
47 회복의 도고: 성전, 백성, 땅, 영성, 나라	73
4) 기도의 용사	74
48 의인의 기도	74
49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태도로	75
50 기쁜 마음으로 기도	76
51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77
52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78
53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기도로 결박하라	79
54 불쌍한 잃어버린 소망을 위한 기도	80

C 성령 81

1) 성령 충만	82
55 두 가지 능력	82
56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	83
57 성령 충만한 자를 알아보는 눈	84
58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85
59 성령-믿음으로 오는 은사	86
2) 성령을 따라서	87
60 성령을 따르는 삶	87
61 인정하고 믿으라	88
62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89
63 전심으로 헌신	90
64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91
65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92
66 성령과 함께	93
67 날마다 성령과 동행	94

D 새벽이슬 팀

95

1) 사용과 이용	97
68 두 가지 유형	97
69 피조물이 하는 것은 계속 바꾸는 것뿐이다	99
70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가	100
71 균형 있게 하라	101
72 창조 질서 보존	102
73 사용함을 받은 팀의 답을 기억하라	103
2)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106
74 내가 속한 곳과 공동체	106
75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107
76 하나가 되어야 한다	109
77 하나님의 일에는 내일이 없다	110
3) 왜 “새벽이슬” 인가	112
78 사명 (Call to do)	112
79 새벽이슬의 헌신 우선순위	114
80 깨끗한 그릇	116
81 새벽이슬의 청결함	117
82 새벽이슬, 항상 깨끗함으로	118
83 신앙 8 선 조율 (한마음)	119
4) 새벽이슬이 되어	121
84 새벽이슬의 삶	121
85 경건은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	122
86 새벽이슬의 “정상적”인 의미	123
87 새벽이슬의 자질 - 온유함	124
88 새벽이슬 - 화평케 하는 자	125
5) 첫사랑으로 사는 새벽이슬	126

89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	126
90	새벽이슬의 삶의 본보기, 롯	128
91	가족	132
6)	‘새벽이슬’ 훈련	133
92	“새벽이슬” 사용 지침	133
93	“새벽이슬” 훈련 체크	135
94	사랑으로 “새벽이슬” 교육을 이끌라	140
95	이런 것들을 훈련하라	142
7)	“새벽이슬”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	143
96	부르심	143
97	“새벽이슬”팀 모집	144
98	하나님의 팀	145
99	훈련시기	147
100	목적을 분명하게	149
8)	어떤 제자인가	151
101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151
102	분별력	153
103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입증	154
104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155
105	확실한 자에게 기름 부으심	157
106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159
107	더 나은 제자가 되라	161
9)	올바른 태도로 하라	162
108	‘새벽이슬’ 태도로	162
109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164
110	선교에는 내일이 없다는 태도로	166
111	예수 그리스도와 십계명	168
112	새 계명과 돌보심	170

113 시련 후에 따르는 것	171
114 섬김의 은사	173

E 헌신 174

1) 헌신 175	
115 무엇이 헌신인가?	175
116 하나님은 왜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176
117 받으신 헌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177
118 헌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정한다	178
2) 무엇이 받으시는 헌신인가	179
119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179
120 헌신에는 자신이 포함되어야 한다	180
121 선한청지기처럼	181
122 약속의 창고를 여는 축복을 부르도록	182
123 받으시는 헌신의 자질	183
3) 헌신할 때 주의사항	184
124 헌신의 동기를 확인하라	184
125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185
126 헌신하는 지혜	186
4) 헌신의 종류	187
127 받으신 헌신의 분류	187
128 하나님이 명하신 헌신	188

F 교회, 예배 189

1) 교회 190	
129 예수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190
130 교회에 주신 천국의 비밀	191
131 살아있는 교회	192
132 정상적 교회	193

133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준비	194
134	예배에 합당한 장소	195
135	제사장은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196
136	제사장의 옷을 입고	197
137	제사장의 의무	198
2)	받으시는 찬양	199
138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	199
139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	200
3)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나라	201
140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	201
141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예배/기도/희생)....	202
142	찾으시는 예배	203
143	마가 다락방의 예배	204
144	정하신 방법으로	205
4)	축복된 예배	206
145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206
146	신령과 진정의 예배	207
147	성령은 예배의 주인	208
148	지상 최고의 축복	209
5)	새벽이슬들의 예배	210
149	‘새벽이슬’ 제자들의 예배	210
150	받으시는 예배	211
151	주가 받으시는 새벽이슬의 예배	212
152	‘새벽이슬’의 예배를 일으키라	213
153	새벽이슬의 예배가 온 땅에	214

G 말씀

215

1)	말씀을 주신 이유	216
154	말씀이 영원한 것들을 가르치신다	216

155 말씀에서 배우라	217
156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하라	218
157 말씀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219
158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	220
2)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말씀	221
159 말씀을 사랑으로 묵상하라	221
160 만남의 노트, 마음에 새겨진 말씀	222
161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것	223
3)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224
162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224
163 말씀에 기록된대로 다음의 사건들이 온다	225
164 예수 그리스도와 나	226
165 말씀을 알면	227
166 말씀은 숨겨진 보물이다	228
167 주의 길, 주의 생각을 찾아라	229
4) 천국은 말씀 위에 세운다	230
168 말씀 위에	230
169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	231
170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232
171 죽음은 영원히 삼켜졌다	233
172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순종	234
173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의 헌신된 마음	235
174 모든 것은 선을 위한 것이다	236
5) 생각을 말씀에 맞추라	237
175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	237
176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	238
6) 예언	239
177 예언이란 무엇인가?	239

178 예언을 분별하라	240
179 말씀은 시기와 때가 있다	241
7) 열린 비밀 242	
180 천국의 비밀	242
181 복음의 10 가지 비밀	243

H 말씀선포 248

1) 말씀 선포에 주의 할것	249
182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것 같은 용기	249
183 말씀이 선포되어야	250
184 설교를 주님께서 먼저 들으신다	251
185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252
186 설교 방법, 5 분 메시지	253
2) 말씀 선포 254	
187 설교 초점	254
188 순수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255
189 마음을 쏟아서	256
190 확신으로	257
191 성령의 능력으로	258
192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259	

I 선교 260

1) 선교 - 팀 261	
193 선교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261
194 두 명씩 한 팀으로	262
195 두려워 말라, 아이성 실패를 기억하라	263
196 순수하고 간단하게	264
197 영적 자녀를 가지라	265
2) 자립 선교 266	

198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266
199	탐욕의 영을 막아라	267
200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라	268
201	세상 일과 선교 일의 차이	269
202	“IGA” 자립 선교와 직업	270
203	가정을 소홀히 말라	271
3)	사역 종류	272
204	어린이들을 도우라	272
205	작은 불꽃이 큰불을	273
206	중동선교	274
207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라	275
208	롯의 믿음과 태도	276

J 나 277

1)	나는 누구인가	278
209	새로운 피조물, 제사장, 하나님 나라	278
210	언제나 동일하신 주	279
211	자신을 살피라	280
212	동기를 점검하라	281
213	행위를 생각해 보라	282
2)	나는 어디에 있는가	283
214	어떤 환경에도 주를 의지하라	283
215	광야는 누구나 통과해야 된다	284
216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285
3)	자신을 이기라	286
217	내 마음은 여리고 성과 같다	286
218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전쟁터인 여리고	287
219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를	288
4)	삶의 목적과 태도	289

220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289
221 신실한 자의 태도	290
5)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라	291
222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빛진 자이다	291
223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라	292
224 주의하고 신중하라	293
6) 인격을 키우라	294
225 잘 다스린다는 것은 인격이다	294
226 소금같은 인격	295
227 신중하게	296
228 분별력	297
229 성숙한 질문	298
230 시간을 아끼는 지혜	299
7) 자기 전 성찰	300
231 평안한 잠으로	300
232 소금의 순수함을 지켰는가	301

K 방향 302

1) 두 길 303	
233 선택	303
234 구별된 자의 길	304
235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305
236 조건 있는 축복	306
237 순종이 있는 믿음	307
238 정상적으로 하라	308
239 성령께 맡기라	309
240 축복된 믿음의 열린 길	310
241 누구의 일인가	311

242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312

L 승리와 성공 313

243	성도의 승리를 통한 성공	314
244	누구의 영광을	315
245	여호수아 전략과 기도 응답으로	316
246	목표를 이루기위해 주의할것	317
247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	318
248	창대해지는 미약한 시작	319
249	훨씬 더 크신 분	320

M 사랑 321

1)	모든 것을 사랑의 힘으로	322
250	빛으로 나타나는 사랑	322
251	원수를 발등상 되게 만드는 자	323
252	사탄은 사랑으로 하는 일을 모른다	324
253	말씀은 사랑이다	325
254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26
255	첫 사랑을 회복하라	327
256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328
2)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329
257	무관심	329
258	사랑은 동정이 아닌 선물이다	330
259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	331
260	하나님의 일은 필요할 때 구하고 받아서	332
261	사랑은 기부와 다르다	333
262	사랑은 자세하며 작은 것에 숨겨져 있다	334
263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신다	335
264	마음의 신비	336

265 사랑의 마지막 기회	337
266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338
267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사랑의 사람	339
268 주를 사랑하는 마음	340
3)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341
269 사랑은 행동을 필요로 한다	341
27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342
271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343
272 받으시는 섬김	344
273 은밀히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345
274 나눔의 동기가 무엇인가?	346
275 받으시는 나눔	347
276 주 안에서 나타난 조건 없는 룯의 사랑	348

N 순종 349

277 여호와를 경외함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350
278 순종과 불순종은 나의 선택	351
279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352
280 말씀을 희석하지 말라	353
281 나의 믿음을 보여라	354
282 모세는 순종한 것뿐이다	355
283 순종으로 기쁨의 열매를 맛보라	356
284 들은 것을 순종하라	357
285 순종의 열매를 맺어라	358

O 동행 359

1)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360
286 무소 부재하신 주	360
287 말씀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라	361

288	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	362
289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363
290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364
291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365
2)	구별된 자로	366
292	구별되었는지 살피라	366
293	선택받은 자	367
294	받으시는 자	368
3)	구별된 증거로	369
295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369
296	하나님의 능력으로	370
297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371
4)	회복하여 주를 모시고	372
298	주의 초대하심을 들으라	372
299	말씀으로 조율하고 자유하라	373
300	“주를 사랑합니다”가 정상적인 고백이다	374
301	믿음으로 새롭게 하라	375
302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376
303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377
304	믿음으로 믿음을 회복하라	378
305	절름발이 믿음의 치유	379
5)	오래 묵은 땅을 갈아엎고	380
306	회개하라, 온전한 회개가 문을 연다	380
307	말씀을 따라 회개하라	381
308	물로 죄를 씻으라	382
6)	자세를 새롭게 하고	383
309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	383
310	자유 의지를 지키라	384

311 나의 정체성에 집중	385
312 맡겨진 일에 집중	386
7) 휴거를 대비하며	387
313 깨어서 휴거를 준비하라.	387
314 받으시는 매일의 삶 (5A)	388
315 나누고 살피는 청지기	389
316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390
317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391

P 열매 392

1) 열매 393	
318 열매를 살피라	393
319 나누기 위한 열매	394
320 때를 따라 열매를	395
321 성령의 열매를 나누라	396
2) 파종과 추수	397
322 세가지 소리	397
323 무엇을 뿌리는가	398
324 추구할 것	399
325 추수 할 시기	400
326 겨자씨를 키우라	401

Q 축복 402

1) 정상적인 축복	403
327 축복을 부르는 충실한 마음	403
328 무엇이 축복과 저주를 가져오는가?	404
329 균형 잡힌 “정상적”인 삶	405
330 균형 잡힌 삶의 능력	406
331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를 만나라	407

332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408
2) 축복의 비밀	409
333 맛있는 과일들은 더위와 추위를 통해	409
334 무엇이 축복을 여는가?	410
335 축복받은 자의 성품	411
336 듣고, 믿고, 축복을 누리는 삶	412
337 이러한 축복을 얻으라	413
338 축복의 자리를 지키라	415
339 넘치는 축복을 나누라	416
340 나누는 축복	417
3) 풍성한 삶 418	
341 위로부터 온다	418
342 “새벽이슬”들의 풍성한 삶을 누리라	419
343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420
344 받고, 관리하고 누리라	421
4) 상급 422	
345 이 땅에서의 상급	422
346 천년 왕국의 상급	423
347 하늘에 있는 상급	424
348 보호와 공급의 통로	425
349 한 영혼이 회개할 때	426

R 경고 427

1) 심판의 경고	428
350 무엇이 죄인가?	428
351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	429
352 심판의 잔이 찰 때 경고하신다	430
353 저주를 초청하지 말라	431
354 저주가 흐르는 강줄기	432

355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433
356	어두운 곳으로부터 나오라	434
357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기계화	435
358	바벨탑은 멸망을 부른다	436
2)	심판이 오고 있다	437
359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437
360	부패의 악순환	438
361	누구도 피할 수 없다	439
362	심판의 대상	440
363	심판의 기준	441
364	이 땅을 떠날 때 받는 심판	442
365	천국은 심판이 없는 곳	443
3)	영원한 가치 위에 세우라	444
366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	444
367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445
368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446
369	단순하게 생각하고 축복을 초청하라	447
370	이루시는 주를 만나자	448
4)	종의 태도 449	
371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449
372	무례하지 말라	450
373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라	451
374	판단하지 말라	452
375	불평하지 말라	453
376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454
377	예, 아니오로 만으로 대답	455
6)	샅곤 목자, 몽학선생들	456
378	세상의 지식과 성령	456

379	죄악의 길에서 나오라	457
380	프로그램으로 성령의 능력을 대체한다	458
381	열정이 말씀에 앞서갈 때 이단을 만든다	459
382	천국 건설자가 누구인가?	460
383	누구의 소리를 따르는가, ...	461
384	하늘의 떡을 먹고도 요단강을 못 건넌자	462
6)	깨닫는 지혜가 있는가	463
385	형벌이자 회개의 기회이다	463
386	헛되이 바친 것, 멸망케 하는 것	464
387	복의 통로를 막지 말라	465
388	선교와 사업을 분명히 구분하라	466
389	무엇이 축복을 막는가?	467
390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라	468
391	변치 않는 것으로 세워라	469
392	어느 잔을 채우는가?	470
393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보는 눈	472
7)	어려운 시기가 온다	473
394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심	473
395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474
396	이런 것들을 조심	475
397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라	476
398	세대가 악하다	477
399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478
400	세대와 나라를 보는 눈	479
401	악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480
8)	이단과 거짓 선지자	481
402	이단의 교리	481
403	샅꾼 목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하기	482

S 사탄, 적

483

1) 적을 알라 484

404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484

405 사탄은 매개체를 사용한다 485

406 사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유도한다 486

407 사탄은 마음을 흔들어 공격한다 487

408 사탄은 서두르게 만든다 488

409 사탄의 고침은 재발하게 한다 489

2)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가? 490

410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 490

411 사탄을 이기라 (8 codes) 491

412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497

413 노력의 결과가 무엇일까? 498

414 사탄의 음성을 따르지 말라 499

415 덮을 주의하라 500

3) 멀하는 사탄의 계획 501

416 사탄의 계획 501

417 적의 계락을 알라 502

418 사탄의 계략 (A)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 503

419 사탄의 계략 (B) 죄를 정당화, 고통으로 507

4) 사탄의 종착지 510

420 쫓겨난 영들이 가는 곳 510

A 믿음

열린 눈, 열린 귀, 열린 마음으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9:2-4)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17)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12-15)

- 1 믿음의 신비
- 2 믿음의 비밀
- 3 믿음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 4 나의 것을 내려놓고
- 5 마음 문을 열고
- 6 말씀을 믿을 때
- 7 청결함으로
- 8 말씀 안에서
- 9 최선을 다 할 때
- 10 믿음이 믿음으로 인도한다
- 11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 12 온전한 믿음을 배우라
- 13 아브라함의 믿음
- 14 예수의 걸음을 멈춘 바디매오의 믿음
- 15 믿음으로 이루는 것 (히 11)
- 16 믿음은 수고가 아닌 순종이다
- 17 믿음은 노력이 아닌 순종이다
- 18 의심이나 변명 없이 순종하라
- 19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 20 믿음의 광야 훈련이 필요한 이유
- 21 죽어가는 것, 잃어버릴 것
- 22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란다
- 23 믿음의 반석 위에 첫사랑을 회복
- 24 원인을 보라
- 25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
- 26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달리라
- 27 요셉의 믿음과 꿈
- 28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 비전을 이룬다

1) 믿음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1 믿음의 신비

하늘의 축복은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믿음 또한 오직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다. 성령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심으면 사랑의 뿌리가 자라난다. 이를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세심하고 꾸준히 잘 가꾸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며, 잎이 무성해지고, 때가 되면, 비밀을 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해 말씀 속에 숨겨진 귀중한 보물과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1-5)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6-19)

2 믿음의 비밀

믿음은 믿음의 비밀인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온다. 순종할 때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다. 믿음은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없으며, 믿음에 서 있을 때 자신을 이기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극복하는 능력이 생긴다. 세상 교육이나 경험, 일반적인 지식으로 믿음을 배울 수 있었다면 세상이 먼저 믿음을 배웠을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 3:5-9)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2-16)

3 믿음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오직 믿음의 문을 통해서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믿음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듣는 연습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성장한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첫걸음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롬 3:26)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1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 11: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2) 열린 마음, 하나님을 만난 흔적

4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믿으며 묵상할 때, 가슴에 새겨지는 살아 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망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말씀에 맞춰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잘못된 생각은 오해와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원수의 속임수에 흔들릴 수 있다. 믿음으로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경청하는 귀와 깨닫는 눈을 가지고, 복된 길을 추구하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 16:2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 8:36)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 103:5)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 29:4)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43)

5 마음 문을 열고

육신의 귀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오직 믿음의 귀로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없다. 믿음의 눈으로만 그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 말씀의 빛이 비추도록 준비하라.

'열림'의 축복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다. 나의 귀가 열려 있는지, 어느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 음성을 따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얼마나 순수하며 깨끗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위치는 어디인지 자문해 보라.

키가작고 부자인 삭게오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뿔나무에 올랐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우리의 '열림'을 방해하는지 파악하고, 회개의 기도로 그 방해물을 제거하고, 마음이 열리는 축복을 구하여야 한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생겨난다. 그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구하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 29: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8)

6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자연 속에서든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내 생각의 문을 열고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일 2:24)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4-15)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0)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7 청결함으로

청결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처럼,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환경을 정결하게 하고, 주어진 말씀을 따라 주를 인정하고 믿으며, 성령을 초대해야 한다. 자연이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의 문을 열고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초조함과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내 몸이 성전임을 인식하고 건강을 지키며,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 4:2)

8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정직한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의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깊게 살펴보자. 깨닫지 못한 것을 묵상할 수 있는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생각을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만나자.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들을 때까지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을 기억하자.

인생의 길은 좁은 문 되신 예수님과 좁은 길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때가 되면 승리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3-15)

9 최선을 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 여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보물을 찾듯이 열심히 찾고 구하면 어디에서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 2:2-4)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와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9-10)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잠 8:12)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 10:24)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잠 21:21)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찌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 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잠 22:17-21)

3) 믿음을 배우라

10 믿음이 믿음으로 인도한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믿음은 세상의 걸림돌이고 난센스이다. 세상은 말씀을 난센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성을 폐하시고, 지혜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셨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믿음은 믿음 있는 자를 믿음으로 인도한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는가? 나를 위한 것인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살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전 1:23)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 14:1)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 10:24)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 8:22-23)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11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세상의 체제는 시간이 흐르면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믿음은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으로 변화시키신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면 이 세상은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세상을 왜 불로 태우려 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믿음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다. 영원한 것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말씀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찾을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우리 마음에 초청해야 한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 1:11)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흐 여호와 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 40:6-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 4:2)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벧후 3:13)

12 온전한 믿음을 배우라

말씀 속에서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찾고, 말씀 속에서 계획하며, 말씀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라.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셨다.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서서 말씀을 따르라.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다. 그들의 대답은 항상 '예'이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라.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보여라.

창세기와 십계명의 교리는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것이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내면의 싸움을 이길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승리의 노력이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구별하라. 축복받는 수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받을 만한 헌신을 준비하며, 약속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이기는 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록된 말씀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잠언 31 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믿고 일하는 자,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말씀은 자녀들에게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후 1:18-20)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13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한 계획이 아니었으며, 단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은 일의 규모나 중요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난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깊고 넓고 거룩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2-24)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롬 4:18-25)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9:30-33)

14 예수의 걸음을 멈춘 바디매오의 믿음

소경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가 근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그를 부르며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그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시며 소경의 눈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바디매오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발걸음을 멈췄고, 소경 거지 바디매오를 만나셨다. 바디매오는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

당시 많은 거지들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에 대해 들었지만, 오직 바디매오만이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러한 용기와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바디매오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과 믿음의 눈은 매우 밝아 결국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걸쭉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막 10:47-50)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 55:6)

4) 믿음으로 이루는 것

15 믿음으로 이루는 것 (히 11)

- 1)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소망을 현실화할 수 있다.
- 2)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 3) 믿음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 4)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 5) 믿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 앞에 모실 수 있다.
- 6) 믿음으로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가족을 구할 수 있다.
- 7) 믿음으로 죄 많은 세상에서도 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
- 8)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성령 안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9)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안다.
- 10)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며, 장막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다.
- 11)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생명과 축복을 받았다.
- 12)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넘겼다.
- 13)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사후에 해야 할 일을 보고 명령했다.
- 14) 믿음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두려움을 극복했다.
- 15)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었다.
- 16)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넘어갔다.
- 17)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 18)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일곱바퀴 돌고 성을 점령했다.
- 19)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구했다.

16 믿음은 수고가 아닌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지 말고 순종하라. 성령을 따르는 데 힘쓰라. 세상 일은 열심으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순종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이 영원하다. 이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의 중요한 예이다. 그들은 무장한 이집트 군인들에 쫓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원수를 심판하는 장소가 되었다. 우리의 현재 상황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누가 나의 영원한 길을 만들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 26: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창 26:1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 5:6-9)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 5:16-18)

17 믿음은 노력이 아닌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 모세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말씀 뿐이다. 심판의 날에 세상의 일은 물거품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훈련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세상의 지식으로 일하는 것의 차이를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일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6-29)

18 의심이나 변명 없이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는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세를 기억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심이나 변명 없이 순종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나의 정결하지 못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그의 임재를 방해한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내 곁에도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한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이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고, 공간이 사랑을 나눌 수 없고, 명성이 사랑을 녹일 수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들은 말씀에 기뻐 순종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인 반석 위에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린아이처럼 기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우리의 삶과 심판, 결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내 삶의 끝과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5)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창 12:4)

5) 믿음으로 꿈을 이루라

19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소망을 믿음으로 찾아가면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을 키우자. 요셉처럼 기쁨 부음과 훈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함께 걸어가실 것이다. 베드로처럼 현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물에 빠질 수 있다.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유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 105:19)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으로다 (시 105:41-42)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잠 31:13)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5-27)

20 믿음의 광야 훈련이 필요한 이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광야로 인도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서곡과 같다. 광야에서는 세상과 나 자신, 즉 '적'과의 싸움을 통해 믿음을 단련한다. 믿음의 훈련은 항상 우리의 삶(목숨)에 도전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따를 때 승리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내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훈련이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 14:6-8)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돔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들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삼상 22:1-2)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 4:1-2)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롬 8:13)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엡 3:20)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21 죽어가는 것, 잃어버릴 것

죽어가는 것을 이미 죽은 것으로, 잃어버릴 것을 이미 잃은 것으로 여기라. 말씀 안에서 죽는 것은 실제로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한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세상의 시험을 승리의 증거로 바꾸어야 한다. 말씀으로 인한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고 견디는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잊지 말라. 새벽이슬은 하나님과 함께 원수를 이기는 팀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가진 신부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바른 말을 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필요하면 시련을 겪을 준비를 하라.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사탄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라.

그들은 모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신 30:18-19)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신 30:14-1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5-27)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12)

22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란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자란다. 우리는 지각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말씀으로 논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첫사랑을 되찾을 때,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나며, 이는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마치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을 준비하듯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을 적어 둔 노트를 준비하여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자란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합 2:2)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 13:35)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1:12)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요 6:55-56)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전 2:13)

23 믿음의 반석 위에 첫사랑을 회복

믿음은 들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기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라.

- 1)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가?
- 2)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임을 믿는가?
- 3)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 4) 나는 예수가 동정녀에게 성육신하신 것을 믿는가?
- 5)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가?
- 6) 나는 예수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과,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며 그를 믿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가?
- 7) 나는 예수가 승천하셨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가?
- 8) 나는 예수가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과,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가?
- 9) 나는 말씀대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과,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가?
- 10) 나의 행위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가?

자신을 살피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하라. 말씀에 순종한 선행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라.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체크하라. 성경을 따르는지 내 마음의 소욕을 따르는지를 살피라. 성경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기다려라. 이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24 원인을 보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며, 모든 일에 그를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라. 이렇게 할 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9 장 23 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악령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굳건히 잡아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다가 왜 빠졌는가? 이는 하나님의 영향이나 사탄의 영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 14:30-31)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약 1:6-7)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 4:2)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 10:35)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6) 때가 이르면 믿음이 열매로

25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

왜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는가? 유대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죽은 지 3일 이내에 육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전통이 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살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나сар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자 두 자매는 절망적으로 울었고, 온 마을은 나사로가 죽었으며 그의 영혼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여호와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따라 사흘을 넘긴 시간을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만들었다. 이 길은 사도들의 순종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부르심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부르심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획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믿고 기다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 103:3-5)

26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달리라

결과에 상관없이 달리라. 40 년 광야의 여정이 실패한 것인가? 원래 11 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주님은 40 년의 여정을 만드셨다. 그것은 실패의 40 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40 년이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리는 살아 있고 성령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예수의 나라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마치 강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에 있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믿고 기도해야 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을 통해 우리가 성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홍해의 한가운데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광야 40 년 동안 신발과 옷이 해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다. 처음과 나중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 기록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 40:24-26)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 43:2)

27 요셉의 믿음과 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 상인에게 팔려 경매에 넘겨졌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간청했지만 그들은 그를 팔아넘겼다. 종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잃지 않았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꿈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았다. 그는 주인의 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까지 요셉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를 감옥에 데려가셨다.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감옥은 그에게 보호와 축복과 말씀의 훈련 장소가 되었다. 형제들은 그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라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를 지키시며 주신 꿈을 이루게 하셨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시련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요셉의 꿈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악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지 아는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시 105:8-10)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시 105:17-22)

28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 비전을 이룬다

오직 믿음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약속된 말씀은 개인의 믿음을 통해 삶에서 나타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과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획을 세우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 4:2)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약 1:6-7)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6-9)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 16:1-4)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B 기도

첫사랑 회복의 기도

29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30 첫사랑을 새롭게 하는 기도

31 기도의 태도

32 기도의 향기

33 알곡의 기도를

34 항상 기도하라

35 매일의 신앙 고백 기도

36 오늘 기도와 믿음으로 심어라

37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

38 성장을 위한 기도

39 곤경을 지날때

40 소망을 위한 기도

41 물질의 필요를 위한 기도

42 능력과 사랑을 위한 기도

43 기도의 잔이 넘칠 때

44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기도

45 말씀 보존

46 선교지를 위한 기도

47 회복의 도고: 성전, 백성, 땅, 영성, 나라

48 의인의 기도

49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태도로

50 기쁜 마음으로 기도

51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52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53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기도로 결박하라

54 불쌍한 잃어버린 소망을 위한 기도

1) 첫사랑 회복의 기도

29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음 없거나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만약 응답받았다면, 그것은 몰락의 시작일 수 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 138:1-3)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 145:1-2)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약 5:17-18)

30 첫사랑을 새롭게 하는 기도

믿음은 첫사랑을 되찾는 것이며, 기도는 그 첫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겪는 시련이 심판인지, 혹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인지 분별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는 욕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결과를 크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도로 첫사랑을 새롭게 하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 6:24-27)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단 9:2-3)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단 9:19-20a)

31 기도의 태도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응답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말라.

급변하는 어려운 세대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들이 ‘새벽이슬’의 세대가 되도록 준비시키라. 기도하며 주께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사랑의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하고 가까이 의논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8)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 10:12-1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1-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32 기도의 향기

때가 악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와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 세상의 이익이나 인정받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

시편 77 편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로 복음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한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이다. 기도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을 받게 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 77:1-9)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8)

33 알곡의 기도를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는가? 시편 99 장, 요한복음 14 장 13-14 절, 그리고 예레미야 33 장 3 절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복음 9 장 29 절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가 모든 욕망과 힘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함을 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말자. 겸손한 종의 자세를 유지하며,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고, 온전한 알곡이 되도록 하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보여주어야 할 올바른 태도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 99:1-5)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3-15)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2-3)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전 5:16-18a)

34 항상 기도하라

• 내 말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이 세대를 준비하라. 모든 것을 기도로 계획하고, 염려하지 말며 범사에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제자들이 보호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호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도록 기도하라. 대부분의 급한 문제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부르짖는다. 하지만 “내 백성은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나오라”고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호 14:1-2)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 20:23-24)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 21:2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35 매일의 신앙 고백 기도

• 감사로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라.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라.

의롭다고 하신 것을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라.

• 기도할 때 이것을 고백하라

나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시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강하시다.

나는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렘 32: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 19:26)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2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2) 기도의 응답으로

36 오늘 기도와 믿음으로 심어라

하나님이 돌로 빵을 만들 수 없었을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어 사람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 않은 곳에서는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기적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하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도적질과 같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기도로, 믿음으로 심어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삼상 1:10)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줄로 생각한지라 (삼상 1:13)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 14:2)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막 15:25-2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7-8)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파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잠 31:13-17)

37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

• 개인의 베이스가 튼튼히 세워지도록

다니엘은 솔로몬의 글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유배지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급 공신으로 섬기는 나라에 끝까지 충성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지 않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모세의 죽음 장소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주 안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로 뿌린 작은 겨자씨가 마음속에서 자라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선포하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굳건히 서서 체제를 정비하며 순종하고, 헌신자들을 축복하라.

개인의 운영체제가 튼튼히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본 자금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라. 베이스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 헌신을 준비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을 드리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 24:3-6)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 8:17-21)

38 성장을 위한 기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 (마음의 소원)를 기도로 심어라. 싹이 트고(일이 시작되면) 가지가 자라면(성장이 보이면) 계획에 따라 기도로 키우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께 기도하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아 시기와 때를 놓친다. 우상과 사탄의 속임에 빠져 큰일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놓친다. 깨어 있으라! 나의 자녀, 배우자, 친구들은 큰일만 좋아하는가? 나의 모든 일과 계획에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대하라. 하나님은 작고 세밀한 것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예언에는 때와 기간이 있음을 분별하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크기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태도, 받을만한 자질을 준비해 왔는지를 지켜보신다. 사탄은 큰일은 할 수 있지만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일(작고 세밀한 것)은 하지 못한다. 제자를 키우는 것은 작고 세밀한(사랑의) 일이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 열매로 영광을 드리도록 성장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라.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팔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 31:26-31)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시 32:8-9)

39 곤경을 지날때

나의 곤경(질병, 어려움, 고난 등)이 나를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인지 분별하여 기도하라. 구약의 율법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는 것이다. 하늘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가? 나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율법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나는 십계명과 새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도록하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나의 뜻을 이루려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라.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라. 내 안에 주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기쁨과 욕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를 행한다.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 28:2-6)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약 4:3)

40 소망을 위한 기도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침묵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 중 하나이다.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시련은 마음을 깨끗게 하고 더 밝게 빛나게 한다.

주 여호와와 내 행동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은 내가 소원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때에 그 원하는 것을 축복하실 것이다.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하라. 땅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고, 결과는 살인, 멸망, 비방, 분열, 패망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받은 소명과 삶의 목적을 아는가? 만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면, 그의 삶은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 7:9)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 67:3)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41 물질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자세히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일 수 있다. 겸손하게 기도하라.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도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죄와 섞이지 말고, 작은 것을 경멸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공급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1-2)는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지를 알려준다. 기도로 구하고, 주께로부터 받으라. 세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면 열 번이라도 구하라. 기도의 잔이 가득 찬 사람은 응답을 빨리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태복음 7:7 의 약속을 지키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11-1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 8:32,33,35 에서)

42 능력과 사랑을 위한 기도

하늘의 권능과 사랑은 창고에 쌓아두고 조금씩 나누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하여 받고, 채우고, 사용하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른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다. 성령이 힘주시는 대로 믿고 선포하라. 나누어 주라,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나누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반대로, 마귀는 내가 죄의 대가로 넘겨져 저주의 통로가 되기를 기다린다. 모든 축복과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오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의 축복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5-16)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약 4:3)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 8:20-21)

43 기도의 잔이 넘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세히 배우고 알고 체험하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이 되고, 내 기도의 잔이 넘칠 때 축복이 온다. 내 기도의 잔은 타인이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채워질 수 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어지며, 그리고 언젠가는 기도의 응답이 돌아온다.

또한 심판은 내 죄의 잔이 차서 넘칠 때 온다. 심판은 지금 이 땅에도 영원한 세계에도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죄인, 가족, 교회, 단체, 국가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신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공의로 다스리신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 8:3-4)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3) 기도-말씀이 이루어지이다

44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기도

참된 기도는 주의 뜻을 이루려고 간구하는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말라. 여호와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I AM(스스로 있는 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 삶을 그의 말씀에 맞추라. 말씀에서 찾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과 화합하여 기도로 주께 아뢰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 때가 되면 새벽이 오듯이 응답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화평을 이루시며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잠언 3 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지키라. 천국은 오직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이 여호와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3-12)

45 말씀 보존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라. 원수는 말씀의 순결을 희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쓰여있는 아름다운 말씀이 보존되고, 인쇄되고, 공급되도록 기도하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그의 총만함이니라(엡 1:21-23)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 5:12-14)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 55:8-11)

46 선교지를 위한 기도

영적인 준비 없이 선교지에 가면 실패한다. 먼저 그 지역의 공중권세 잡은 영들의 세력을 묵도록 기도하고, 백성의 필요를 찾고 기도로 준비하라.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라. 우리가 영적 군대이기 때문에 사탄은 더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로 먼저 점령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기도의 잔을 먼저 채우고, 그 후에 선교하라. 그러면 적의 요새를 물리칠 것이다.

말씀이 뿌려질 수 있도록 연결되는 일들을 계획하라. 현명하게 분별하라. 악한 시대이니 더 많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믿음 없는 기도는 공중의 메아리 같으나, 주의 종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이자 강력한 무기이다.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별하라.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가? 기도의 잔이 채워졌는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 62:10)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민 22:12)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민 23:19-20)

47 회복의 도고: 성전, 백성, 땅, 영성, 나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계획이 이루어지며,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앗시리아를 연결하는 대로가 있도록 기도하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에레미야 32:37-41)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19:23-2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은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겔 39:25)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겔 39:28)

4) 기도의 용사

48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다. 모든 기도가 응답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기도와 육신적인 소망을 위한 기도는 응답을 못할 수 있으니, 이에 주의하라. 만약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만일 명예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시련의 문을 두드리는 것일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 시점에 생명을 취하시어 내 영이 주님을 대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따라 그 음성에 순종하라.

오늘의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해 같이 빛나게 하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 14:13-14)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7-8)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22)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 6:9-15))

49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태도로

마음가짐-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라

나의 기도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라. 나의 소속 단체의 운명이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태도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단 9:2-6)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오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단 9:17-19)

50 기쁜 마음으로 기도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라; 그는 기도로 시간을 준비하는 용사였다. 시간을 준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없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기회다. 과거를 후회하고 누우치지 말고, 과거의 실수를 자신의 성장을 위한 비료로 삼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기회다.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 현재의 가난, 고통, 상실, 불친절, 쓴 뿌리, 증오, 분노, 실패, 절망, 우울, 낙담하는 생각들을 십자가 아래에 맡기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자 하는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 참된 기도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단순히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만족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며 기도에 힘써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3-15)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51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하늘문을 열고 닫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집중하라.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휘둘려 아내(세상)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을 받았으며, 그가 사랑했던 아내에게도 생명이 아닌 죽음과 고통을 안겼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 나는 주인을 따르고 있는가? 감정 때문에 아담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보아라.

주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 두드려라. 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라. 말씀을 믿고 기도로 듣고 그림을 그려라.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말씀의 능력으로 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약 5:17-18)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3b)

52 다니엘처럼 기도하라

다니엘은 유배 중에 예언서를 읽으며 성전 회복의 시기를 깨달았다. 그는 솔로몬의 저서에 기록된 기도의 약속을 믿고, 매일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약속된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드리는 모든 기도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응답은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일어난다. 내가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때로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다. 응답을 받기 전에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하며, 그 앞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침묵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잔이 넘칠 때까지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3-14)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2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53 복음을 대적하는 것을 기도로 결박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주의 이름에 걸맞은 온전한 기도의 제단을 쌓아라. 참된 기도는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과 간구를 감사함으로,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라. 복음을 대적하는 영을 결박하고 기도하라.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가 악하니,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분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b-10)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6-7)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3-4)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엡 1:20-2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딤펴 2:1)

54 불쌍한 잃어버린 소망을 위한 기도

• 북한

북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린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소망을 잃은 것이 더욱 불쌍하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마음은 소망이 없다. 영원을 잃어버린 것은 매우 비참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북한 땅, 감옥, 광야에서도 일하신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라.

• 무슬림 임만, 유대 랍비

모슬렘 임만, 유대 랍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찾도록 기도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욥 2:27-32)

C 성령

- 55 두 가지 능력
- 56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
- 57 성령 충만한 자를 알아보는 눈
- 58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 59 성령-믿음으로 오는 은사
- 60 성령을 따르는 삶
- 61 인정하고 믿으라
- 62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 63 전심으로 헌신
- 64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 65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 66 성령과 함께
- 67 날마다 성령과 동행

1) 성령 충만

55 두 가지 능력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능력이 존재한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성령의 역사이며, 다른 하나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종류의 능력이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허수아비와 같지는 않은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허수아비에게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까?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고, 구하고,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며, 믿음을 통해 권능을 얻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하는지 간증을 살피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욥 2:29-30)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38)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행 4:29-3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 1:7)

56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

계시록 2 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받아 첫사랑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충만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으로 끝내지 않도록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과 동행해야 한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5)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 5:16-18)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돌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속 3:7)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3-4)

57 성령 충만한 자를 알아보는 눈

만약 이 세상에 성령으로 100%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 나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어느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눅 2:25)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32)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4)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 41:16)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 41:38)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엡 5:9-10)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엡 5:19-20)

58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능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를 구하라. 누가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은사를 약속받았다. 우리는 약속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의 도를 알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도행전이 계속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의 불신과 불순종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고, 알고, 이해할 것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3)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3:10-12)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59 성령-믿음으로 오는 은사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내 의지로 주의 일을 막지 말라.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능력을 전심으로 구하라. 주의 일을 막지 말며,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에 주목하라.

새벽이슬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한다. 성령의 은사는 나와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며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서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전 12:3-11)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고전 12:28)

2) 성령을 따라서

60 성령을 따르는 삶

광야에서의 만나

복된 삶은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며,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앙을 걱정하지 않으며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삶은 광야에서 만나는 것과 같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 1:16-19)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이라 (벧전 5:7-9)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 23:1-6)

61 인정하고 믿으라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론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 자신을 세우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우고, 성령의 은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5-17)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행 2:32-33)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일 2:24)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3)

62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자. 겸손하고 즐거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친구처럼 모든 것을 의논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성품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과 같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날개 아래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사 48:17-1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3-14)

63 전심으로 헌신

오늘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과 그의 이름을 주셨다. 사랑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나의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2-3)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6-27)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는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전 5:9-10)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64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맡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능력을 주신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와는 구별된다. 이 능력 없이 은사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제자들을 택하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라.

나 자신을 살피고 믿음에 서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내가 성령을 따르는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지를 살펴보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4-15)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4-15)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행 5:14-15)

65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믿고 묵상함으로써 성령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 믿음이 생길 것이다.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능력을 체험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만약 성령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채 행동하게 되고, 능력이 없는 지식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5)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 11:6)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22)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7-11)

66 성령과 함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존중하여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 성령의 은사로 새벽이슬이 되기를 연습하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은 도덕적이거나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며 영원한 것이다. 기근 중에 모든 사람은 낙심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롯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물로 받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롯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나누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긴다. 팔복을 연습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을 연습하라. 기도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기도 응답에 순종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4-5)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1)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벧후 3:14)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22)

67 날마다 성령과 동행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령을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예수께서 '하늘의 가장 작은 자'에게 세례를 주신 이유를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도의 은밀한 장소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 6:6-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 10:28-3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 6:53-58)

D 새벽이슬 팀

- 68 두 가지 유형
- 69 피조물이 하는 것은 계속 바꾸는 것뿐이다
- 70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가
- 71 균형 있게 하라
- 72 창조 질서 보존
- 73 사용함을 받은 팀의 답을 기억하라
- 74 내가 속한 곳과 공동체
- 75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 76 하나가 되어야 한다
- 77 하나님의 일에는 내일이 없다
- 78 사명 (Call to do)
- 79 새벽이슬의 헌신 우선순위
- 80 깨끗한 그릇
- 81 새벽이슬의 청결함
- 82 새벽이슬, 항상 깨끗함으로
- 83 신앙 8 선 조율 (한마음)
- 84 새벽이슬의 삶
- 85 경건은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
- 86 새벽이슬의 “정상적”인 의미
- 87 새벽이슬의 자질 - 온유함
- 88 새벽이슬 - 화평케 하는 자
- 89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
- 90 새벽이슬의 삶의 본보기, 롯
- 91 가족
- 92 “새벽이슬” 사용 지침
- 93 “새벽이슬” 훈련 체크
- 94 사랑으로 “새벽이슬” 교육을 이끌라
- 95 이런 것들을 훈련하라
- 96 부르심
- 97 “새벽이슬”팀 모집
- 98 하나님의 팀
- 99 훈련시기
- 100 목적을 분명하게
- 101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 102 분별력
- 103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입증
- 104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 105 확실한 자에게 기쁨 부으심
- 106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 107 더 나은 제자가 되라
- 108 ‘새벽이슬’ 태도로
- 109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 110 선교에는 내일이 없다는 태도로
- 111 예수 그리스도와 십계명
- 112 새 계명과 돌보심

113 시련 후에 따르는 것

114 섬김의 은사

1) 사용과 이용

68 두 가지 유형

하나님 앞에는 사용되는 사람과 이용되는 사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누가 사용되었고 누가 이용되었는가? 이용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 모두에게 이용당한다. 제자처럼 살지 않았음에도 성공했다면, 하나님과 사탄에게 동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경고다.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자는 구별된 자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용된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며,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 13:2)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 26:75)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21:17)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 16:1-4)

69 피조물이 하는 것은 계속 바꾸는 것뿐이다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계속 바뀐다. 확실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 또는 상황적이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근본 문제, 영원과 죽음, 자연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절대적인 능력이 없으면 또 바꾸는 일만 되풀이하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 문제인 삶과 죽음과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사용되는 자와 이용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16-23)

70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가

사업은 대출이나 타인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선교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만이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택하여 돕는 자로 보내실 수 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선교의 일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암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출 31:6)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8:4)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3-4)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 4:18)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71 균형 있게 하라

설계된 대로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면 개선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정상적이다.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의미이다.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화롭게 유지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 균형 잡힌 영혼의 삶은 큰 힘을 가진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균형이 깨지면, 말씀에서 벗어나 적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을 과도하게나 부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6-9)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 5:37)

72 창조 질서 보존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창조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라. 창조의 원리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독신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라. 창조의 명령을 나의 생각으로 타협하지 말라.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라. 창조 질서의 원리와 인류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라. 모든 것을 창조의 원리에 따라 행하라. 창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기쁘시게 하는지, 뜻을 따르는지, 때에 맞는지 고려하라.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교훈을 주시며 도우신다.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며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라.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으며, 그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 127:3)

73 사용함을 받은 팀의 답을 기억하라

1) 나에게 주신 가나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 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신 1:18)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2) 나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1:6)

3) 어떻게 내 삶과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딤후 2:21)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5)

4)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비밀히 행할 수 있는가?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 17:1)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 139:7-10)

5)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요 1:7)

6) 거룩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 나이다. (요 17:19)

7) 누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는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 20:6)

주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눅 12:42)

8)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8)

9)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10) 나는 예수 제자의 자격이 있는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6-27)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33)

11) 온유한 것은 무엇인가? 왜 온유해야 하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12) 가난한 심령이란 무슨 뜻인가? 나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 66:2)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 5:3)

2)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74 내가 속한 곳과 공동체

각자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분별해야 한다. 새로운 신자, 불균형한 신자, 성령을 따르도록 훈련받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 등, 각자의 위치와 소속을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일과 헌신을 분별해야 하며,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새벽이슬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민해보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가족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의 영원한 결과는 무엇인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마 12:30)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 1:12-18)

75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사도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배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고 말기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라.

군인의 책임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군인의 의무를 다하라. 나의 직책은 무엇인가? 주어진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눅 16:15)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딤후 6:11-1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딤후 2:4)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1-2)

76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하며, 부족들도 주를 예배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여러 종파로 나뉘어져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와 같다. 나는 내 교만 때문에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빼돌려진 마음을 가진 채로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태도들이 분열과 질투를 일으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연합은 불가능하다.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3-24)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4:3-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6)

77 하나님의 일에는 내일이 없다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태도와 마음

하나님의 일에는 내일이 없다. 그러므로 사역할 때,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좇아 믿음으로 구원의 해를 선포하라.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1-3)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 3:1-8)

3) 왜 “새벽이슬”인가

새벽이슬은 새벽에 나타나는 깨끗하고 맑은 이슬을 의미한다.

78 사명 (Call to do)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복되고 영원한 나라이다. 진리는 찾은 사람에게 순수하고, 혼돈이 없는 것이다. 이 진리를 사랑으로 행하고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믿음과 기도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 10:11-14)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5-16)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 57:10-11)

79 새벽이슬의 헌신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순서는 먼저 가족과 자녀들을 돕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다.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창 5:21-23)

미쁘다 이 말이며,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딤후 3:1-4)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1-5)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딤후 2:1-5)

80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며, 이는 부패와 타락, 인생의 낭비로 이어진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며, 탐심은 그 문을 열게 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5)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엡 5:3-5)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앞이라 (딤후 2:19-23)

81 새벽이슬의 청결함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록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분은 정결한 피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도 혼합된 포도주를 거절하셨다. 새벽이슬처럼, 우리는 혼합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과 같아야 한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연단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다.

새벽이슬의 표준은 십자가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새벽이슬은 악과 세상의 함에 맞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헌신하는 자이다. 새벽이슬은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한 신랑에게 즐겁게 순종하고, 첫사랑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충성한다.

나는 말씀을 따라 청결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청결함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록이 있는가? 새벽이슬은 오실 하나님의 영광의 현주소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잠 8:12)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 7:24)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5-16)

82 새벽이슬, 항상 깨끗함으로

하나님은 세상과 혼합된 마음 속에 거하지 않으신다. 사탄은 가장된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을 회색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악과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색시킨다. 죄와 악은 섞이며, 오염시켜 거룩함을 회색하려 한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회색시키려 하지만, 새벽이슬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회색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모시는 청결한 마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섞지 말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의 능력과 증거를 통해 하나님께 속함을 나타낼 것이다. 세상은 물과 기름을 오염시킬 수 있지만, 새벽이슬은 오염될 수 없다. 새벽이슬의 축복받은 삶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자체를 더럽히지 않는다. 새벽이슬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낮은 자리를 택한다. 나눔을 좋아하며,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룬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눅 16: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3-24)

83 신앙 8 선 조율 (한마음)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과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말씀에 따라 조정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주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와 하나가 되면 큰 능력을 얻게 된다.

사탄은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기에, 어떤 것이 원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라.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라.

머리 (절대진리)
가슴 (첫사랑, 담대함)
눈 (영원함과관계성)
귀 (세소리)
코 (사람, 바벨탑)
입 (권능, 심판)
손 (누구를 기쁘게)
발 (무엇을위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 소이다. (요 17:20-23)

4) 새벽이슬이 되어

84 새벽이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을 품어 평화를 이루는 순수한 새벽이슬이 돼라. 새벽이슬은 세상과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간다. 새벽이슬은 십자가에서도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새벽이슬’은 장차 오실 영광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 모습을 나타낸다.

‘새벽이슬’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다.

‘새벽이슬’은 정직하고 지혜로우며 지혜를 따르고, 세상이 제시하는 타협을 거부한다.

‘새벽이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이 있음을 안다.

‘새벽이슬’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를 안다.

죄는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결정이나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죽은 믿음 안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1-23)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6)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85 경건은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 덕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령적 가난과 잃어버린 영혼의 고통을 인식시키며, 겸손을 부여하고, 의로움을 갈망하게 하며, 긍휼을 베풀도록 독려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2)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20:7)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 20:2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 19: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벧전 1:16)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사 43:2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5-6)

86 새벽이슬의 “정상적”인 의미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의미하며,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균형 잡힌 삶은 큰 능력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불균형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삶은 적에게 속아 말씀 밖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교회나 선교에 있어서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태도와 같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6-8)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6)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딤후 2:5)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 2:13)

87 새벽이슬의 자질 - 온유함

새벽이슬 같은 겸손함과 순결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흠 없는 충실한 청지기이자 순수한 알곡이다. 온유함은 자신의 책임을 알고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성품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땅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지만, 온유한 자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며 축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1-3)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3:7)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30)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불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 37:22-25)

88 새벽이슬 - 화평케 하는 자

새벽이슬은 정죄와 심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이 권위를 존중하며 자신의 의를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 새벽이슬은 믿음이 작은 이들을 사랑으로 책망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격려(칭찬)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유함, 겸손, 인내의 덕을 점차 닦아가는 새벽이슬이 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 5:37)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6)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딤후 2:9-13)

5) 첫사랑으로 사는 새벽이슬

89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

새벽이슬은 기뻐하여 헌신하고,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신부이며, 신실하고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힘을 이겨내는 자이며,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흠없이 완전한 자, 불을 통과한 자들이다.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서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3)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 17:14)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일 5:5)

90 새벽이슬의 삶의 본보기, 롯

• 십계명을 순종

하나님은 롯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녀에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게 하셨다. 롯은 새벽이슬의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 기근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간 그녀의 신실한 삶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여 그의 백성들을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하셨다. 롯의 삶은 십계명을 지키며 새벽이슬처럼 사는 법을 보여주었다. 롯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나오미를 공경했다. 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겸손하고 충성된 마음의 표현이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주와 동행하는 축복받은 성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선교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선교, 봉사, 헌신을 롯처럼 행하며,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너를 낳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 8:3)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 1:16-17)

• 조건 없이 사랑

룻은 가정의 기둥인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 먹을 것도 기술도 없는 이방인의 땅에서의 생활이라는 비참한 환경에 처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기본적인 생필품도 부족한 곳에서 살았다. 룻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민족과 편안한 삶을 찾는 대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다. 룻은 조건을 보지 않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 룻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모든 일에 순종했다. 땀을 흘리며 조롱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이삭을 주웠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했다. 이방인이자 여성으로서 차별과 수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보아스를 만났다. 이것이 새벽이슬의 삶이다.

나는 에녹처럼 가족의 필요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광야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 5:22)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 2:7)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 3:11)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잠 13:21)

• 자기 십자가를 지고 - 선교사 모습

룻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낯선 곳에서도 안정을 찾았다. 자기 부모와 민족, 그리고 나라를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다.

왜 룻은 이삭을 주워야 했을까? 모든 곡식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분별력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수확한 이삭 중 일부는 거의 먹을 수 없었지만, 룻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순종과 끈기로 이를 극복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도 주어진 일이 힘들더라도 노력해야 하며,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꾼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6-27)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 18:13-14)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b)

91 가족

• 결혼

독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결혼의 적령기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육하며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원리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마지막 계산과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라. 결혼과 사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 중에 찾아라.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8)

• 자녀들

자녀를 주님 안에서 양육하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야곱과 에서, 다윗의 형제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지혜롭게 훈계하라.

또 아버지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엡 6:4)

• 아내

아내들은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내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며, 지혜로운 아내는 진주보다 더 귀중하다. 아내들은 선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6) ‘새벽이슬’ 훈련

(MDD-Morning Dew Disciple)

92 “새벽이슬” 사용 지침

교재를 한 번에 모두 주지 말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라.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추가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간과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매일 아침 깊이 묵상하며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묵상을 계속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굶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사 28:23-24)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사 28:29)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13-14)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일 2:2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 6:53-58)

93 “새벽이슬” 훈련 체크

A.

말씀: 영원한 관점 (말씀을 이루시는 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마 26:53-5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의 얹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 17:14-15)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 12:17)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 19:13)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1-7)

상급: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 19:17)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 14:31)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2)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 18:4-5)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되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34-40)

경고: 성령보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성령과 동행하라.

-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 내가 깨닫고 믿는 말씀이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안다.
-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B.

기도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 21:22)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 7:7-9)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요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0-15)

-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
-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태도가 무엇인지 안다.
-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안다.

C.

예배 (주의 능력과 동행하라)

-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
-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할 줄 안다.
- 받으시는 예배에 나타나는 징조를 안다.

D.

자립 선교 운영

- 소명, 비전, 프로패션을 안다.
- 나의 프로패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지 안다.
-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있다.
- ‘승리와 성공’의 징조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키는지를 안다.

- 적의 계략과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을 안다.
- 나의 약점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

94 사랑으로 “새벽이슬” 교육을 이끌라

하나님께서서는 변하지 않는 말씀과 율법을 사랑으로 주셨다. 사랑, 정의, 그리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항상 모든 행동에서 진실되고 덕 있게 행동하며,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새벽 이슬' 훈련 프로그램을 이끌 때, 이 원칙들을 기억하라. 완벽한 훈련을 추구하는 것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완벽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5:26)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 10:14-1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요일 2:5-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골 1:26-27)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5:8-10)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4)

95 이런 것들을 훈련하라

- a) 모든 결정을 기도의 응답으로 하는 훈련
- b) 듣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훈련
- c)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과 길’을 전하는 훈련
- d) 사람들을 존중하여 말을 조심하는 훈련
- e) 주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훈련
- f)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실천하는 훈련
- g) 마태복음 5 장, 팔복을 실천하는 훈련
- h) 성령을 따라 새벽이슬의 삶을 실천하는 훈련
- i)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훈련
- j) 받으시는 순종의 훈련
- k)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훈련
- l)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훈련
- m)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훈련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잠 30:24-25)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 10:10)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5)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벧후 1:10-11)

7) “새벽이슬”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

96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라. 리더가 하는 일과 따르는 자들이 하는 일은 다르다. 모든 사람이 만나를 사랑하거나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기적과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나를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3)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 1:26-27)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5-6)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 6:33-34)

97 “새벽이슬”팀 모집

“새벽이슬” 팀을 주시도록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사 베들레헴 땅에서 에브랏 사람의 아들 다윗을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셨다.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며, 그들은 120 명의 다락방 제자였다. 선교단체에서 기초 훈련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제자를 찾아, 시대에 따라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받는 “새벽이슬”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깎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마 5:18-22)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3-4)

98 하나님의 팀

주님은 즐거운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순종으로 인해 불 뱀을 보내셨다. 부와 건강, 명예가 있을지라도 불순종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 7:1)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요 13:7)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3)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5:26-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 4:8)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 여 아 할 일 을 한 것 뿐 이 라 할 지 니 라
(눅 17:10)

99 훈련시기

훈련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계속해서 이루어서는 안 된다. 감정에 휩쓸려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신 1:21)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8-9)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 3: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딤후 2:1-4)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6-17)

100 목적을 분명하게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한 동네를 모두 복음화하겠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선교사는 제자를 키우는 것을 기억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사 62:10)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딤후 2:1-6)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행 2: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3-16)

8) 어떤 제자인가

101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 어떤 자인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나의 관심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을 본질을 분별하라. 그 사람이 구경꾼인지, 노동자인지, 간섭하는 자인지, 기회주의자인지를 분별하라. 제자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아야 한다. 열두 제자 중 누가 사탄에게 이용당했는가?

• 두 종류 중 어디에 속한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오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과 같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서 준비된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탄과 하나님 둘 다에게 이용당하는 자에게는 “나에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성경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마 13:36-40)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 13:2)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 19:8-9)

102 분별력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를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존심, 또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 말하는가에 주목하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충실히 따르는 청지기인가?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헌신하는 일꾼을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 '내가 알기에는'이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말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6-27)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33)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딤후 2:2-7)

103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입증

입증된 제자들과 함께 일하라. 악탈하는 늑대를 식별하고 조심하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라.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그런 영적 제자를 양육하라.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지를 분별하고 선택하여 함께 일하도록 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1-4)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몬 1:9-15)

104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라. 부르심은 사람의 추천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선택된 것이다. 신실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능력과 권위가 주어질 것이다. 부르심을 확인하라. 해산의 진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부르심을 잘 몰랐다. 입술로는 주를 불렀으나 자기의 판단으로 마음을 잃어버렸다.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충실하지 않았다.

나의 부르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늘로 부터 공급의 통로인지 확인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고 배우라. 마음을 열어 주를 믿고 인정하며 주에게 나가라. 그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의 "새벽이슬"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물으신다. 내 제자를 선택하는데, 사람들의 추천이 필요한가? 그것은 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나는 순종하는 자에게 내 일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낚은 가족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 9:17)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 4:11)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으로라 (요 15:16-17)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4)

105 확실한 자에게 기름 부으심

하늘의 팀은 충성스러워야 한다. 충성은 “새벽이슬”의 필수 조건이다. 충성된 마음은 돈, 인정, 지위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부르심이 확실한 자에게 임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1-2)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 1:7-8)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딤후 1:11-12)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행 4:19-20)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행 4:29-30)

106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아브라함, 삭개오, 고넬료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신실함과 충성심으로, 첫사랑과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순종하라. 제자는 복음의 증인이다. 훈련해서 둘씩 세상으로 보내라. 능력에는 성령의 능력과 마술사 시몬의 능력, 이 두 가지뿐이다, 성령 충만하고 충성하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7-8)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6-8)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 2:13-15)

107 더 나은 제자가 되라

세상은 전쟁터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선교사 훈련은 교회 훈련보다 강하다.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우리 선교 회원들은 어떻게 보일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여호수아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둘째는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도둑과 같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를 깨달아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만약 세상에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다르게 변할까?

애굽의 바로는 즉시 요셉을 알아보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성령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라. 신학이 아닌 세상과 섞이지 않은 말씀만을 전하는 제자들을 모아야 한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1-4)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삼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수 1:11)

9) 올바른 태도로 하라

108 ‘새벽이슬’ 태도로

거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마태복음 5 장의 가르침을 실천하라. 일을 할 때 논쟁, 원망, 불평, 다툼을 피하고, 오히려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임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살피시며, 자신의 일을 맡길 충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 3:15)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일 2:6)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전 2:7)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2-5)

109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 방법, 교리에 희석되지 않은 영적이고 순결한 예배를 세우실 것이다. 이 예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결한 다락방 예배와 같을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다락방에 모여 정해진 시간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는지 상상해보라. 그리고 성령의 기쁨부으심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상상해보라. 자신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 타인도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단순한 녹음기나 과외 교사의 지시가 아닌, 하나님의 계명임을 명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는 복을 끌어내는 길이다.

다락방의 120 명의 제자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음속에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었다. 우리도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행 2:36-40)

110 선교에는 내일이 없다는 태도로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메시아가 그곳에서 올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지도자나 선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불신으로 몰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칭하지만, 실제로는 독단적이고 교만하며 불순종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다. 이들은 심판의 날에 버림받게 될 것이다.

마리아처럼 의심 없이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기적의 잉태와 같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원망이나 편견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대항하여 기도하라.

선교에는 내일이 없음을 명심하라. 오늘의 만남을 마지막인 것처럼,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라. 세상은 악의 영향 아래 있으며, 죄는 더 많은 죄를 낳아 점점 악화될 것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딤후 1: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5)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 15:18-20)

111 예수 그리스도와 십계명

십계명을 떠난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는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격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자격조건을 폐지한 것인가? 죄가 삼사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축복이 천대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누적의 원리를 생각하라.

• 계명대로 하시는 하나님

혼돈된 성문화로 인하여 유전자의 문제까지 일으켜 버린 이 세대에 십계명의 원리를 세워라. 원리를 세운다는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사랑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라는 의미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계명을 저버리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멸하셨다. 믿는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이 주어졌다. 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은 것이다. 그 사랑과 태도, 그리고 축복의 원리를 이 세대에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하며 나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라.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7)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3)

112 새 계명과 돌보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예수 나라를 세우도록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왕과 제사장의 권위를 주셨다. 그 권위는 부활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새벽이슬들은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원수를 밭등상 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

새벽이슬들은 이 권능으로 어려운 일을 돌파하고, 성령과 함께 물과 불을 통과한다. 기록된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과 합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아있는 말씀을 맛보게 한다. 이 권능은 시련을 간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4-6)

113 시련 후에 따르는 것

시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어려운 시련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다듬기 위해 사용하시는 시험석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깨뜨려야 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 14:2)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 14:4)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벧전 1:6-7)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 12:11)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벧전 5:10)

114 성김의 은사

성김, 교제, 헌신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교제는 상호간의 주고받음을 의미하며, 헌신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성김이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셨는지를 생각해 보자.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는 광야에서의 축복과 같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룻기 1:6).

하나님께서서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배우고 이해하자. 은사를 잊지 말고, 선교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원칙(성김, 교제, 헌신)을 마음에 새기자.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다.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요 13:4-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4-4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발이 있으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행 4:36-37)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롬 12:6-8)

E 헌신

- 115 무엇이 헌신인가?
- 116 하나님은 왜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 117 받으신 헌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 118 헌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정한다
- 119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 120 헌신에는 자신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1 선한청지기처럼
- 122 약속의 창고를 여는 축복을 부르도록
- 123 받으시는 헌신의 자질
- 124 헌신의 동기를 확인하라
- 125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 126 헌신하는 지혜
- 127 받으신 헌신의 분류
- 128 하나님이 명하신 헌신

1) 헌신

115 무엇이 헌신인가?

헌신은 첫 사랑의 자발적인 표현이다. 합당한 헌신은 주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며, 상급과 주님의 영광을 가져온다. 헌신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성별하여 드리라.

어떤 일을 끝내고 그것을 주님께 바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헌신이 아닌 나의 일일 뿐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희생, 온전한 영광, 그리고 받을 만한 가치가 담긴 헌신만을 받아주신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곳에 축복이 없다면, 그것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5-1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8)

116 하나님은 왜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의 문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헌신이 있을 때 열린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헌신은 저주를 없애고 축복을 연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헌신위에 그의 일을 세우신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 8:20-22)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1-7)

117 받으신 헌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가?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엘리야는 극심한 기근과 가뭄의 날에 산꼭대기에서 물 12 통을 제사로 바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헌신을 받아들였고,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다.

왜 하나님은 다비드를 다시 살리셨을까? 다비드는 제자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 밤새도록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인정하셨고, 그 보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베드로의 믿음과 다비드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독생자의 헌신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헌신을 기다리시며, 그들의 헌신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가 여호와와 이름의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아를 돌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열왕 18:32-35)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18-22)

118 헌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정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은 헌신의 제단에서 시작된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5 천 명 이상을 먹이며 남은 축복을 생각해 보라. 받은 헌신은 축복과 영광의 문을 열어준다. 제자들의 헌신이 있을 때,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라. 그 헌신을 축복하고, 그 희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제자들 중에서 희생의 헌신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롯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롯의 신실함과 무조건적인 헌신을 보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벽이슬'의 성품을 보여준다. 받은 헌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올 승리와 영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표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6:9)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롯 1:16)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롯 2:7)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롯 2:10-11)

2) 무엇이 받으시는 헌신인가

119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호흡,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골라 주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구별하여 드리라. 내가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주의 뜻대로 사용하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드리라. 그래서 이 헌물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쓰이도록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7)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6-7)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 16:16-17)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시 4:5)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 3:9)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120 헌신에는 자신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신에는 반드시 나를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몸과 시간, 재능, 소유, 사랑의 마음을 바친다. 이것들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열매이다. 만약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다. 단지 시간만 바치거나, 물질만 바치거나, 혹은 시간을 바치지 않거나 물질만 바치는 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다. 봉사와 헌신을 구분하라. 헌신이란 여러 가지를 조금씩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5-16)

121 선택지처럼

오늘날에는 구약의 엄숙한 의식과 신약의 약식이 혼재되어 있다. 청지기처럼 주인의 뜻을 따라 헌신적으로 장소를 정결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선정해야 한다. 그 장소를 하나님을 모시는 곳으로 특별히 구별하고 기도하라. 받은 지시나 답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 8:18)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 12:5)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신 12:8)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4)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2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핍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핍을 얻은 자니라 (벧전 2:9-10)

122 약속의 창고를 여는 축복을 부르도록

하나님은 돈의 부족 때문에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적절한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 헌금은 순수하고 진심이 담긴 것이어야 하며, 교회에 수표나 신용카드로만 헌금하거나 구겨진 지폐를 무심코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약속의 창고를 여는 축복의 문을 위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헌금의 양이나 숫자보다 마음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올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받은 예물을 성령의 인도하에 올바르게 사용하며, 축복의 길을 준비하라. 인정을 받기 위해 자랑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행동하라. 헌금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라. 주 앞에서 감사한 마음과 믿음, 경건함을 가지고 합당한 예물을 바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청지기처럼 헌신하고 약속의 창고를 여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흐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 1:8)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 50:14-15)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123 받으시는 헌신의 자질

헌신은 과부의 두 렵돈, 리디아의 초청, 마리아의 향유,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가루와 같은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온전한 헌신이다. 제단 앞에서는 진심으로 헌신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첫 열매를 바쳐야 한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한 헌신만을 받아들이시며, 부적절한 헌신은 받지 않는다. 그러한 헌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을 중요시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예물에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막 12:4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막 12:29-30)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막 12:3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7-8)

3) 헌신할 때 주의사항

124 헌신의 동기를 확인하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종교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생각해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내 지식이나 재산으로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큰 척하지 말라.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나의 의지를 강행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 내 행동을 통해 예수의 능력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 또한 헌신이 아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5-2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눅 16:15-16)

125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마리아는 오랜 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아온 향유 한 병을 준비해 두었다. 그 병은 언제든 깨뜨릴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월절이 바로 헌신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기다렸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헌신했다. 주님은 그 헌신을 받아주셨고, 마리아는 축복을 받았다. 그녀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지게 되었다.

막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 향유 한 병을 준비했다. 그녀는 준비된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무덤으로 갔지만, 결국 헌신의 기회를 놓치고 돌아와야 했다.

시간은 한 번만 주어지며, 되돌릴 수 없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헌신의 기회와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기회를 놓친 후에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첫번째 실패의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세 번째 헌신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 12: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막 14:3)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지 아니하더라 (눅 24:1-3)

126 헌신하는 지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는 헌신의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헌신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무분별하게 바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 중에서 구별하여 지혜롭게 헌신하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19-20)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 2:13-14)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 16:9-10)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후 8:2-5)

4) 헌신의 종류

127 받으신 헌신의 분류

a) 온전히 드린 헌신

- 이삭은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드렸다.
- 이스라엘에 장자를 구별하여 헌신하도록 하셨다.
-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양식을 온전히 드렸다.

b) 진심으로 드린 헌신

-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산 헌신
- 마리아: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헌신
- 자기 발을 팔아 헌금한 바나바의 헌신
-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
- 상속받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헌신
- 사랑해서 봉사로 섬긴 다비다의 헌신

c) 작지만, 모든 것을 드린 헌신

- 과부의 두 렫돈
-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d) 생명을 드린 헌신

- 스테반은 더 큰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헌신은 사명의 열매이다. 그 헌신이 더 큰 일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로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신 사역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128 하나님이 명하신 헌신

아브라함의 헌신을 생각해 보라. 그는 외아들 이삭을 기꺼이 헌신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한 결과로 풍성한 열매와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헌신할 때, 좋은 것을 두고 두 번째 것으로 드리려고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고 변명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의존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나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큰 축복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자. 하나님의 축복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 이러한 헌신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르실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성령을 따라 헌신하자. 주님께서 예비하신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한 번 놓친 하나님이 명하신 헌신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막 11:2-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창 22:2-6)

F 교회, 예배

- 129 예수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 130 교회에 주신 천국의 비밀
- 131 살아있는 교회
- 132 정상적 교회
- 133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준비
- 134 예배에 합당한 장소
- 135 제사장은 밀씀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 136 제사장의 옷을 입고
- 137 제사장의 의무
- 138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
- 139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
- 140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
- 141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예배/기도/희생)
- 142 찾으시는 예배
- 143 마가 다락방의 예배
- 144 정하신 방법으로
- 145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 146 신령과 진정의 예배
- 147 성령은 예배의 주인
- 148 지상 최고의 축복
- 149 ‘새벽이슬’ 제자들의 예배
- 150 받으시는 예배
- 151 주가 받으시는 새벽이슬의 예배
- 152 ‘새벽이슬’의 예배를 일으키라
- 153 새벽이슬의 예배가 온 땅에

1) 교회

129 예수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는 교회를 청결하고 정결한 기초 위에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희석되지 않도록, 희석된 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셨다. 청결함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희석된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청결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어려운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진리는 절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 희석되지 않은 온전한 영광이다. 순수한 첫사랑을 항상 지켜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 1:22-23)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 2:21-22)

130 교회에 주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의 비밀을 주셨다. 이 비밀은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 비밀을 깊이 탐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심이 들어오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올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된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을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은,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3-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 1:17-23)

131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띤 자이다. 나 역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새벽이슬같은” 교회 모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이며,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한 제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때로는 폭풍을 지나가게 하신다. 주님은 진실한 찬양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항상 거하신다. 그곳에는 축복과 성령의 임재가 존재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 1:1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18-20)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 6:13-17)

132 정상적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고, 듣고, 중생, 예언, 회개, 감사, 헌신, 희생, 순종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3-6)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 1:22-23)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전 2:7)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전 2:12-1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행 2:42)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133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준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벽이슬"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그것을 찾는 주의 종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벽이슬" 제자들의 예배가 광야의 장막, 성전, 두란노 서원, 그리고 그의 영광이 가득했던 초대 교회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영광스러운 예배는 주의 임재가 있다. 살아 있는 예배는 그의 임재 속에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악을 물리칠 것이다.

- 믿음의 문을 열어(합 2:4; 요 17)
-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인정하며 (히 11:6)
- 마음을 살피고 정결한 곳에서 (마 5:8)
- 온전한 회개의 토단 위에 (출 20:24; 호 10:12)
- 감사와 진심으로 준비된 제물의 향기로 (시 50:23; 창 4:4; 말 1:8; 요 4:24)
- 자신과 함께 다 드리며 (롬 12:1)
- 믿음으로 기록된 대로 제사장이 되어 (계 1:6)
- 주를 초대하여 모시고 (계 3:20)
- 예수 이름으로 (요 17:22; 빌 2:9-11)
- 주의 영광이 오도록 선포하고 (벧전 2:9)
- 신령과 진심의 예배를 드리라 (요 4:24)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29-31)

134 예배에 합당한 장소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회개하며 주를 경외하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깨끗하게 하셨던 일, 성전을 바라보며 애통해하셨던 모습,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희생제물을 드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칭하셨던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방해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막힌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1-2)

이는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0-23)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4-15)

135 제사장은 밀씀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자신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정결한 장소에서, 섞이지 않는 올바른 말씀을 잘 준비해서 (5 분내용), 사람들이 백 퍼센트 이해할 때까지 가르치라. ‘새벽이슬’의 복된 삶을 세상은 알 수 없다.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지키고, 순전한 삶을 유지하라.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준비를 하라.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율법과 말씀은 어디서 오는가? 누가 그것을 지키고 가르쳤는가?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기근과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데, 숨겨진 말씀을 열어 주신 것에 감사하라.

(시편 15)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 [] 정직하게 걷는 자
- [] 의를 행하는 자
- []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자
- [] 비방하지 않은 자
- [] 이웃을 해치지 않는 자
- [] 친구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
- [] 악을 멸시하는 자
-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자
- [] 맹세한 것은 변치 않는 자
- []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자
- [] 무고한 자를 해하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 1:10)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일 3:20-21)

136 제사장의 옷을 입고

식물이 자라기 위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필수적인 요소인 말씀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작은 불꽃이 큰 불길을 일으키듯, 작은 믿음의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의로운 제사장처럼 정결하고 바른 옷을 입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회개가 넘쳐흐를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라. 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용감해질 수 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라. 예배자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이며, 예배 중에 회개와 초청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6)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19-22)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2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후 2:1-2)

137 제사장의 의무

천 명의 좌석을 채우더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을 수 있을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마음이 있었는가? 참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라. 제사장의 의무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번제를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시사항과 위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며, 판단자의 위치에 서지 말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속 3:4)

내게 토단을 싣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 20:24)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 16:2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6-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딤후 6:14)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6)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2) 받으시는 찬양

138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다.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라.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보다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찬양을 하라. 회개와 기쁨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라. 이 찬양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찬양하라. 찬양을 통해 사탄의 힘과 원수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된다.

찬양은 나팔 소리와 같고, 손뼉 치는 소리는 군마들이 달리는 큰 소리와 같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찬양하라. 찬양은 우리의 적들을 두렵게 만들며, 밝게 빛나는 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 150:2)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 5:13)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10)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 15:3-4)

139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

나는 실패, 가난, 질병, 고통의 연속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는지 마음과 생각을 되돌아보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라.

내가 주님께 드린 희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많은 생각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자물쇠로 잠긴 헛간의 상자처럼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의심과 감정이 성령의 임재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의 문을 열며, 기도와 찬양으로 적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 11:3-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 27:1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 51:1-3)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시 65:3)

3)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나라

140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다. 세상 것으로 희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은 참 예배자, 신실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과 능력을 받고, 그의 임재를 세상에 선포하라. 성령의 임재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마귀가 주는 혼돈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이며, 여기에는 믿음, 정결, 깨끗함, 회개, 겸손, 통회, 감사, 찬양이 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신을 살피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믿으라.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로 계획하셨는지 아는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행 10:2)

141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예배/기도/희생)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임을 기억하라.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말씀을 섞지 말라.

모두 와서 예배드리게 하라. 하나님이 예배 중에 축정이와 알곡을 구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은 다니엘,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종과 그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 1:9)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 3:6)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마 21:12-13)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 32:11-12)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나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행 9:17-18)

142 찾으시는 예배

• 마음이 열릴 때까지 경배와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라. 옴의 친구들처럼 장황한 말로 설교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드리라. 준비된 거룩한 장소에서 여호와를 맞이하라. 한 번이라도 이런 예배를 드려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드리라.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은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영광이 임하도록 전심으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를 맞이하라.

• 속지 말고, 속이지도 말라

손을 들고 말씀과 기도로 적들에 맞서라. 찬양이 거리에 퍼져 나가고, 축복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받아들여지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영혼을 구원하는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진심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그릇이지만,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강해진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믿으라. 찾으라.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지키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7-11)

143 마가 다락방의 예배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점검하라.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의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러서 성령의 기쁨부으심과 권능의 은사를 받아라.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의로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작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자와 믿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38-39)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144 정하신 방법으로

만약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성경에서 언급된 몽학선생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거짓 제사장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육체적 욕망과 시선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 성령의 임재를 막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어떻게 화합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나의 스타일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항상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신령과 진정, 회개와 감사, 그리고 청결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귀의 영향력에 빠져 부적절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증거가 느껴진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감사와 찬미로 예배를 드리자.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1:10)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 20:24)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 19:22)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4) 축복된 예배

145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교회 구성원이 많아져서 부흥의 목표를 이루었는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예배를 원하신다. 이 예배는 진심 어린 회개와 잃어버린 영혼의 귀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나타남을 통해 생동감 있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중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하는 헌물과 함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을 기억하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가르쳐 세우라. 진리의 말씀은 살아 있으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눅 16:15)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9-10)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146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을 위해 세밀하게 준비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말씀에 따라 합당한 예복과 희생을 바쳐 자신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몇 달에 걸쳐 성실하게 준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준비과정을 지켜보셨다.

성실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준수하여 예배를 준비하라.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행사와는 구별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집회로 모일 때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지속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행 4:29-31)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4-18)

147 성령은 예배의 주인

성령은 모든 예배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시다.

성령은 언제 오셨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4)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전 2:10)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148 지상 최고의 축복

하나님은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새벽이슬’과 같은 헌신과 봉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에는 기름 부으심의 임재가 동반된다. 창조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첫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다.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행 2:17-21)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행 8:15-17)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행 9:16-18)

5) 새벽이슬들의 예배

149 '새벽이슬' 제자들의 예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새벽이슬" 예배가 드러지기를 원하신다. 예배 중에 성령과 만나고 있는지 분별하라.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하는 다락방 예배를 원하신다. 예배를 통해 능력을 받아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예언(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더욱 많은 찬양으로 예배를 드러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영을 쫓아내라. 거룩한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그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을 초청하라. 원하는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새벽이슬 선교는 사무엘의 라마 사원, 바울의 두란노 서원, 다락방에 모인 120 명의 새벽이슬 제자와 같아지길 바라신다. 우리의 목표는 선교지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의 120 명 같은 새벽이슬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다락방의 예배는 죽음을 각오한 제자들의 예배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율법을 논의(신학 토론)하러 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오순절 다락방의 120 명 제자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 12:32)

150 받으시는 예배

예배는 인간의 방법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영이 거듭나는, 회개와 영접의 시간이며 치유의 시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준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성령이 가르치실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며, 기도로 모셔야 한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되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헌신적인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러한 예배는 받으실만한 예배이며,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다. 종교의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이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을 서로 나누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통해 거룩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축적하시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축복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마음을 살피신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그가 주셨고, 심판의 날에는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마 21:12-1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

151 주가 받으시는 새벽이슬의 예배

새벽이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그 예배는 충성된 마음과 합당한 제물로 드러지며,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성령의 기쁨 부음의 표징이 있을 것이다.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벽이슬은 조건 없이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한다. 새벽이슬은 함께 하는 자들에게 힘을주는데, 이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한 간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 8:20-2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 4:2)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152 ‘새벽이슬’의 예배를 일으키라

주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 새벽이슬의 예배이다. 거룩하고 정성으로 준비된 순결한 예배 중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애통해하는 회개가 있는 기도실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는 말씀 묵상 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무엇이 올바른 예배인가, 올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치유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쟁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출 20:24-25)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8-9)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153 새벽이슬의 예배가 온 땅에

믿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구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여호와와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선포하라.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으로 성결하고 풍성한 삶을 살며, 타락한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

주 여호와와 새벽이슬의 예배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새벽이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과 마가복음 9 장 23 절의 말씀을 이루어라. 시간을 아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 8:12-1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19-20)

G 말씀

- 154 말씀이 영원한 것들을 가르치신다
- 155 말씀에서 배우라
- 156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하라
- 157 말씀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 158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
- 159 말씀을 사랑으로 묵상하라
- 160 만남의 노트, 마음에 새겨진 말씀
- 161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것
- 162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 163 말씀에 기록된대로 다음의 사건들이 온다
- 164 예수 그리스도와 나
- 165 말씀을 알면
- 166 말씀은 숨겨진 보물이다
- 167 주의 길, 주의 생각을 찾아라
- 168 말씀 위에
- 169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
- 170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 171 죽음은 영원히 삼켜졌다
- 172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순종
- 173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의 헌신된 마음
- 174 모든 것은 선을 위한 것이다
- 175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 .
- 176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
- 177 예언이란 무엇인가?
- 178 예언을 분별하라
- 179 말씀은 시기와 때가 있다
- 180 천국의 비밀
- 181 복음의 10 가지 비밀

1) 말씀을 주신 이유

154 말씀이 영원한 것들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알도록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보도록

축복의 길로 가도록

어떻게 살 것을 알도록

필요할 때 도우심을 받도록

원수를 알게 하고 위험을 피하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155 말씀에서 배우라

하나님이 교회(성도)에게 광야에서의 시련을 겪게 한 이유는 택한 백성이 떡만으로는 살 수 없으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활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로 사탄과의 대립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배운다. 복음의 길을 찾는 방법도 함께 알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며 인내와 순종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배운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한 모든 행위는 영원한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 8:2-3)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23)

156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의 원수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잡는다. 그러나 꼬리를 잡는다면 뱀에게 물릴 위험이 있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은, 사람의 인식이나 상식을 초월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다 해도 그것은 변치않고 전능하시며 온전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핏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항상 우리를 위한 더 큰 의도나 계획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다. 우리는 자신의 상식, 경험, 지식, 감정을 넘어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8)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딤후 2:13)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9:24)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157 말씀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성경은 옛날부터 세상 권세들에게 핍박을 받아왔다. 현대에도 성경을 읽고 전파하는 것으로 핍박당하고 있다. 또한 말씀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고, 잘못 다루어지고, 잘못 적용되고 있다. 사탄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역사는 피와 고통으로 가득한 것일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5)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시편 138:2)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3)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 1:19)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 16: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렘 9:24)

158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라. “만나”가 다르게 요리된 것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표적과 기적, 능력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할 것이 없다.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막 4:19-20)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고전 4:2-3)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7-8)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6-17)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 15:1)

2)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말씀

159 말씀을 사랑으로 묵상하라

말씀은 영원하다. 거듭난 성도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라. 성령의 가르침을 들을 때까지 읽고 또 읽으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면 성령의 가르침을 들을 것이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주를 제한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첫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사랑의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십계명에서도 주의 “첫사랑”을 만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겸손과 섬김과 나눔과 인내를 실천하라. 내일은 주께 속한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6:55-56)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4)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27)

160 만남의 노트, 마음에 새겨진 말씀

성령과 내가 만난 일기, 학습 노트, 토론 노트와 같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 노트를 만들어, 영적으로 읽고 깨닫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라.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율법을 잊어버린 백성은 멸망했으며,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은 죽었다는 것도 잊지 말라.

마음에 기록된 말씀은 듣는 영혼들에게 힘을 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방법을 찾아라.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감동을 준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쓰고 기억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 영혼에 힘을 주지 못한다.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 3:1-4)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신 2:14)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 26:53-54)

161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 헌신, 봉사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이다. 이는 소동과 고모라,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노력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말씀의 보호를 떠나는 것이다. 세상이 만든 논증은 능력도, 영원한 구원도, 신뢰할 수도 없으며, 계속해서 변화한다. 말씀의 뒷받침이나 증거가 없는 증언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를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 없으시며,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실 것이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는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8)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1-12)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렘 9:24)

3)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162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 a)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 b) 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해야 했는가?
- c) 왜 예수가 심판주가 되어야 하는가?
- d) 왜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
- e)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하신 것을 기뻐하는가?
- f)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가?
- g)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도를 나누는가?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인지 아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8)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यो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 1:6-7)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 2 서 1:6)

163 말씀에 기록된대로 다음의 사건들이 온다

- 제 3 성전 건축과 레위제사장 매일 제사시작
-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 매일 제사를 폐지함
- 휴거
- 신정정치와 대환난
- 이스라엘백성 구원과 ALIYAH 성취
- 이 땅의 심판, 그리스도의 날
- 천국 혼인 잔치
- 예수의 재림
- 사탄의 세력이 끝나고 죄악이 없는 세상
-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 성도의 상급
- 백 보좌 심판
- 새 하늘과 새 땅
- 예수의 영원한 나라

164 예수 그리스도와 나

계명만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계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규범일 뿐이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뿐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의 차이가 무엇일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원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시다고 기록되어 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순종이 허락된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며 체험하게 한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서 누리는 특권이자 큰 축복이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3-16)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165 말씀을 알면

말씀을 알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면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 성경이 가르치는 것

- 나는 누구인가?
- 하나님은 누구신가?
- 나는 어디에 있는가?
-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단지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샘 솟는 생수를
 맛보았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 8:3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11:25-26)

166 말씀은 숨겨진 보물이다

말씀 안에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말씀에서 발견한 것들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 기적과 능력이 있다.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고, 그 후에 안수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표적과 기적, 예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 1:13-15)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3),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전 2:4-7)

167 주의 길, 주의 생각을 찾아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 8:17-21)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23)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4)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잠언 21:21)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55:6-13)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9:24)

4) 천국은 말씀 위에 세운다

168 말씀 위에

말씀으로 생각하라, 모든 것이 영원하다
 말씀따라 계획하라, 모든 것에 열매가 있다
 말씀과 동행하라, 모든 능력이 있다
 말씀을 믿으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 위에,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4)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 10:35)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6-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요 11:40)

169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재산과 생명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며, 이 땅과 함께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24-2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 15:13-14)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3:11-15)

170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 구원과 기쁨의 헌신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나는 누구의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 19:7-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8-10)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3-15)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맡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 143:7-10)

171 죽음은 영원히 삼켜졌다

죽음과 죄인이 없는 도시들, 천국의 혼인 잔치,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 이것들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 5:3)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 11:9-10)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5:17)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65:24-25)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사 60:20)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 37:9-10)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전 15:55-56)

172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순종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축복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라.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며,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고 지적한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예수의 이름과 교회를 이용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기를 위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 16:1-4)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1-23)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약 1:22-25)

173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의 헌신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같이 헌신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때가 되어 위로부터 큰 능력이 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자만이 이 능력을 안다.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세상에 내세우지만, 아직도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고 있지는 않은가?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7-19)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행 2:2-3)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3-24)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174 모든 것은 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축복을 가져오며,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경계선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공중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승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가로되 만일 내게 앞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 4:9-10)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수 없도다 (민 23:19)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1-12)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 6:33-34)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 12:45)

5) 생각을 말씀에 맞추라

175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수확할 것이 없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라. 만나가 다르게 요리된 것처럼, 말씀을 통해 다양한 표적, 기적,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 4:2)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 11:6)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 55:11)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6-8)

176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

내가 맡은 직분이 장로, 목사, 선교사, 성도 중 어떤 것인지는 부르심에 따라 결정되며, 내가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기쁘게 순종하라.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그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기쁘게 순종하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분열을 일으킨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전 12:4-11)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 2:20-21)

여호와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역하 16:9)

6) 예언

177 예언이란 무엇인가?

• 말씀 위에 주의 뜻을 세우도록 인도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뜻을 세우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더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순종과 불순종은 나의 선택이다. 예언을 경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지혜를 갖추어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구별하신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전 5:19-22)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1-3)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전 14:2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6)

178 예언을 분별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실천한 것에 따라 심판과 상급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가?

첫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는가?

만약 예언이 개인의 안녕과 좋은 사업과 번영만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도록 인도한다면 그 예언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 작은 일을 성취하는 법을 자세히 말씀하신다.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비로부터 큰비를 구하라. 작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 요새를 정복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로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자세히 묻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세부 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작은 일에서 비밀을 놓치며, 오직 큰 것만을 추구한다. 이는 우상 숭배와 같다.

축복의 최종 목표는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언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성전 돌과 들판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7-8)

179 말씀은 시기와 때가 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시기와 때가 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게 된다. 죄의 잔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고 경고하셨다. 이것은 국가, 단체, 교회, 개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과거가 이를 증거 하였고 미래가 증거 할 것이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 1:4-6)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시 37:37-40)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 25:29)

7) 열린 비밀

180 천국의 비밀

• 감추어진 축복

세상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세상은 어려움 속에 숨겨진 축복을 보지 못한다. 세상은 세속적인 걱정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알곡이 뿌려진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 이들은 같은 밭에서 자라다가 추수할 때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물은 숨겨져 있다. 찾아서 그 가치를 발견하라. 진주의 가치를 아는 눈을 가져라. 만약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살 것이다.

• 겨자씨와 누룩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고, 누룩은 부풀게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늘에 속한 질과 양을 생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 13:31-33)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으로라 (요 15:16-17)

181 복음의 10 가지 비밀

이 비밀들은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열린 비밀이다.

1. 하늘의 비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11)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 12:44-4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2. 구원의 비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0-12)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엡 3:5-6)

3. 그리스도의 비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군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15-29)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마태복음 13:35)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19)

4. 믿음의 비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찌니 (디모데전서 3:8-9)

5. 지혜의 비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7-8)

6. 하나님의 뜻의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7-10)

7. 교회의 비밀

이러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군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1-7)

8.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7)

9. 진리의 깊은 비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하시느니라 (고전 2:7-10)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 2:22)

10. 경건의 능력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 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디모데 전서 3:16)

H 말씀선포

- 182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것 같은 용기
- 183 말씀이 선포되어야
- 184 설교를 주님께서 먼저 들으신다
- 185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 186 설교 방법
- 187 설교 초점
- 188 순수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 189 마음을 쏟아서
- 190 확신으로
- 191 성령의 능력으로
- 192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1) 말씀 선포에 주의 할것

182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것 같은 용기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예수를 불신했다. 이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배경과 그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이나 지도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마치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것처럼 용기를 가지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편견과 독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그들처럼 되지 말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마 12:30)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15:18-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 10:19-20)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 10:28-31)

183 말씀이 선포되어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주의 영이 역사한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신 11:19)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행 2:14)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행 2:36-37)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6-17)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4:17)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요 8:54)

184 설교를 주님께서 먼저 들으신다

말씀만이 악으로부터 보호한다.

말씀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

말씀만이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말씀만이 회개와 부흥을 가져온다.

세상처럼 결과로 최종 평가를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악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악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31-41)

185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더욱 복되다. 선포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순종은 듣는 자의 책임이며, 가르치는 것은 종의 책임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선지자들처럼 회개하며 악에 대적하라. 악과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먹이가 되어 얻매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청중보다 먼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찾으시며, 말씀대로 깨끗한 그릇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큰 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많은 그릇이 있다. 주인은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한다.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 2:20-21)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금흙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4:17)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186 설교 방법, 5 분 메시지

설교는 말씀을 회석한다. 불필요한 설명은 최소화하고 낯선 단어의 뜻만 명확히 설명하라. 사람의 말은 귀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 사람의 말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를 깊숙이 파고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분별하고, 핵심적인 요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5 분 메시지'로 요약하여 전하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나의 말이나 설명이 아닌, 말씀에서 들은 것을 전하라. 예배시간에는 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받은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세속적인 말, 유머, 외부적인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석한다. 만약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축복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2-13)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11)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행 2:36-37)

2) 말씀 선포

187 설교 초점

- 순종은 축복을 가져온다.
- 순종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한다.
- 순종은 명예를 가져온다.
- 순종은 승리를 가져온다.
-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

예배와 찬양 중에 악령들이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기도응답을 듣게 될 것이다. 말씀은 믿음을 낳고, 들은 말씀은 소망이 된다. 항상 축복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며, 순종한 자들에게 임한 축복, 순종으로 이룬 성 정복,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시킨 순종, 승리를 가져온 순종,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순종, 그리고 말씀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 강조하라. “기록된 바” 승리의 목록을 마음에 새기도록 전하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3)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잠 21:21)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트 아르바라 (수 14:13-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수 21:45)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 11:30)

188 순수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1.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그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가?
2.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3.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기록된 말씀과 그의 이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5. 나는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6. 말씀이 내 가족과 나의 장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7. 나는 어떤 선택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8. 내가 아는 복음은 무엇인가?
9.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0.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은 무엇인가?
11. 내 일을 방해하는 적은 누구인가?
12. 적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13. 어떻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가?
14.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고, 간단하며, 분명하게 선포하라. 말씀을 심령에 심어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표적과 기사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 성령이 없는 교리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동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찌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 12:44-48)

189 마음을 쏟아서

나는 설교할 때 단순히 문장이나 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지식이나 성취한 일, 또는 내 힘으로 이론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하고 있는가? 설교할 때 마음을 쏟아라. 글을 쓸 때 마음을 쏟아라. 노력할 때 마음을 쏟아라.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쏟아라. 선포할 때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 7:37-38)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 2:17-18)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도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 1:16-17)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찌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 9:1-3)

190 확신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해야 한다. 생각, 마음, 그리고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회개하자. 모든 상황에서 항상 주님을 초대하자.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말자.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기 전과 후에도 항상 기억하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 55:6-7)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사 57:15)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1-2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191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가?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율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사랑이 있다면,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게 될 것이다. 잘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세상의 환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므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가르치심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는 유능한 지도력이나 단련된 화술이 아닌, 오로지 성령과 선포된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너를 낫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하려 하심이니라 (신 8: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 4:4)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14)

192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졸업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존재하는가?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책이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그의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일은 전략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주신다. 능력이 나타나는가? 신학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것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있는 가르침이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찌니라 (수 8:2)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와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 33:10-11)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 10:12-13)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I 선교

193 선교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194 두 명씩 한 팀으로

195 두려워 말라, 아이성 실패를 기억하라

196 순수하고 간단하게

197 영적 자녀를 가지라

198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199 탐욕의 영을 막아라

200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라.

201 세상 일과 선교 일의 차이

202 “IGA” 자립 선교와 직업

203 가정을 소홀히 말라

204 어린이들을 도우라

205 작은 불꽃이 큰불을

206 중동선교

207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라

208 룯의 믿음과 태도

1) 선교 - 팀

193 선교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예수의 선교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 4:19)

• 사람을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사람을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한다. 숫자가 작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를 만들어라. 사랑과 배려는 필수지만, 동정과 개입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새벽이슬”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산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순종과 불순종을 분별하라. 그물 안에 있다고 다 좋은 고기는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균형이 있는 의인을 얻는 것이다. 균형은 풍요로운 삶을 가져오는 힘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 11:30)

• 선교의 성공 측정

선교의 성공은 선교사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로 측정된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 17:14b)

194 두 명씩 한 팀으로

제자들을 두 명씩 한 팀으로 단기 또는 장기 선교사로 보내라. “새벽이슬” 훈련은 이론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신학교도 아니고, 과거의 영광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고 신뢰할 만한 제자를 훈련하는 것이다.

장기나 단기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새벽이슬”들의 특권이며 사명이다.

•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열어 우리 모두 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는 서로 협력하며 주어진 일을 위해 각자의 달란트를 결집해 일을 해내야 한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명을 이루도록 하라. 이 헌신이 능력으로 불일 듯 일어날 것이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작은 말 한마디로도 큰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닫힌 마음에는 역사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회개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펴보라. 아브라함과 같이, 헌신의 제단으로 나오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내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 바른 태도를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일을 하늘의 창고에 모으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 대가로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찾는 자, 내 말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195 두려워 말라, 아이성 실패를 기억하라

두려워 말라.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상황적이 아닌, 절대적 진리로 다스리신다. 큰 여리고 성을 정복했는데 작은 아이 성에서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탐욕을 제거하라. 우리는 모두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그 성령을 따르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것을 버리라. 모든 불의를 회개하라. 비옥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자. 믿음으로 화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 멸망한 자들을 생각하라. “새벽이슬” 팀을 만들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예수 이름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수 7:12)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사 1:18)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5)

196 순수하고 간단하게

순수하고 간결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그러므로 현지화된 전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상황에 방해받지 않는 현지용 전도 도구를 찾아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사람들의 언어, 문화, 종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지 상황에 맞는 도구 개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현지 문화와 언어와 상황을 존중하면서도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엽서, 그림, 전도 소책자, 더빙된 영화 등 다양한 도구와 자료를 개발하라. 지역 전문가, 어린이, 친지, 친구, 교인들에게 적합한 자료를 개발해 순수하고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적합한 미디어를 통해

현재는 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하는 시대이며, 이를 통해 인재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오네시모와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를 통한 전도 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7 영적 자녀를 가지라

변화의 열매가 보이는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가? 나에게 영적인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가? 내게 주신 것을 불평 없이 나누는가?

• “새벽이슬”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

그리스도의 첫 제자는 요한의 제자였고, 그들이 120 명의 다락방 제자였다. 선교단체에서 기초 훈련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제자를 찾아 시대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새벽이슬”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하라.

주님께서는 즐거운 헌신자, 순종하는 마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 뱀을 보내셨다. 부와 건강과 명예가 있더라도 불순종의 대가는 찾아올 것이다.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훈련은 때가 있다. 계속해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에 이끌려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새벽이슬”팀을 주시도록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온 땅을 살피사 베들레헴 땅에서 에브랏 사람의 아들 다윗을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셨다.

2) 자립 선교

198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 자립 선교를 위하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마음에 열정은 있지만 물질의 부족, 기본적인 생활의 위협, 사탄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립 선교를 위하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람과 물질을 공급하실 것이다. 빌립이 순종하여 광야로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그를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옮기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셨다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신 1:31-33)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출 19:4-6)

199 탐욕의 영을 막아라

나는 창조주나 소유주가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선교하는 방법과 사역을 돕는 방법에 주의하라. 하나님이 “주라”고 하실 때 지시대로 그 사람에게 베풀라.

주의 종과 선교사는 사업을 위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의 영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선교자금을 사업과 섞지 말라. 투명한 회계 체제를 적용하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38-44)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칭함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딤후 6:9-10)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200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라.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권능이 나타나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

광야에서 선교하는 자들은 요단강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강이 열리는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다른 도움을 찾는 자들도 있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도움'을 자처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며, 선교사는 광야로 돌아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교활동과 인도주의적인 일, 일꾼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필요를 모두 제공하실 것이다. 그러나 선교활동과 선교사업을 돕는 운영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와 자립선교를 위한 사업은 둘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운영 방식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5:15-18)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 7:7-8)

201 세상 일과 선교 일의 차이

사업은 대출이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만이 요단강을 갈라 놓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교 일을 도울 적합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세상일과 선교 일의 차이를 알고 혼돈하지 말라. 일의 결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생각하라.

기본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은 은행의 역할을 한다. 내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말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다. 내 손에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번 나의 쓸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찌어다 아멘 (빌 4:15-20)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2)

202 “IGA” 자립 선교와 직업

적시에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계속 개발

세대가 바뀌고 있다. 이전의 전략에 고정되어 있지 말고, 사역의 장소와 관련된 선교 전략을 새롭게 개발하라. 적시에 필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과 선교 사업을 돕는 것, 이 두 가지 종류의 도움을 명확히 구분하라. 사업 운영의 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자금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투자는 은행 대출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작업에는 적절한 구조와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그것을 잘 구축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의를 실천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하셨느니라 (사 62:10)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찌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찌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 6:24-27)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 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년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쁨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 65:8-13)

203 가정을 소홀히 말라

선교사들은 에녹처럼 가족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에녹은 65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자녀를 낳았으며, 가족의 필요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에녹은 육십 오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삼백 육십
오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5:21-2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4-
16)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1-12)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엡 5:8-14)

3) 사역 종류

204 어린이들을 도우라

어떻게 현재의 적들이 어린이들을 공격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사탄은 어린이들을 공격하여 지치게 하고,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하지만 사탄은 그들을 깊숙이 공격하여 영혼을 사냥하고, 영양실조를 유발하며,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는 세상의 음란함을 끌어들여 타락, 연약함, 가난, 절망, 근심, 분노를 심는다.

수천 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기적은 한 어린이의 오병이어의 헌신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이들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다양한 과일을 만드신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자. 순수한 물, 비타민,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따뜻한 빵을 제공하자.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자. 어린이 사역에 더 집중하도록 하자. 어린이들에게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3-4)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 8:2)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 18:10)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 18:14)

205 작은 불꽃이 큰불을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며, 태우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 작은 불꽃도 큰 불을 일으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 타협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자.

기름은 심지를 통해 타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불타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이 없음을 의미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없다.

영적인 일은 타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 믿음의 심지를 통해 성령의 빛을 밝혀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욥 2:28-30)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갈 5: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민 23:11)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206 중동선교

성경 문화의 배경이 중동이기 때문에, 중동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강의나 예언이나 기적이 아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애정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영혼이 말씀에 사로잡힌 중동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계획해야 한다. 헌신적인 제자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또 다른 능력 있는 제자들을 일으키도록 기도하고 기쁨을 부어야 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37-41)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행 5:29-32)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행 8:4-8)

207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자들을 모집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 부활하신 진리는 살아있고, 성령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

•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전도를 위해 준비하고, 지역사회를 돕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라.

• 불의를 쫓지 말라

일의 실패는 믿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세상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있는 동료로부터 올 수 있다. 그들은 불의로 궁궐을 짓고, 다락을 짓고, 불의를 행하고, 노동 착취를 했다.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예수의 발등상으로 만들고 계시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4-15)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 10:12-13)

208 룯의 믿음과 태도

룯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순종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신실함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며, 예수의 출생을 위해 예비하신 보아스를 그녀에게 주셨다. 보아스는 룯의 조건 없는 헌신과 땀에 대한 선물이었다. 룯, 라합, 다말의 믿음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의해 보일 수 있지만, 여호와와 축복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새벽이슬’ 같은 믿음의 행위였다.

선교사들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삭을 줍는 사람처럼 룯의 믿음과 일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룯처럼 충성스러운 순종과 근면한 태도가 필요하다. 바쁜 머리보다는 부지런한 손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룯처럼 신실하게 일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야 한다.

• (8 가지) 축복을 부르고 나누는 (룯) 새벽이슬 성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약 3:11)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	야고보
마 5:3-12	벧후 1:5-7	빌 4:18	약 3:17
가난함	믿음	덕망함	성결함
애통함	덕	경건함	양순함
온유함	지식	칭찬함	관용함
의로움	경건	참됨	편벽안함
금욕함	인내	옳바름	금욕함
청결함	거룩	정결함	거짓없음
화평함	형제사랑	사랑함	화평함
의-핍박	사랑	기림	선함

J 나

- 209 새로운 피조물, 제사장, 하나님 나라
- 210 언제나 동일하신 주
- 211 자신을 살피라
- 212 동기를 점검하라
- 213 행위를 생각해 보라.
- 214 어떤 환경에도 주를 의지하라
- 215 광야는 누구나 통과해야 된다
- 216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 217 내 마음은 여리고 성과 같다
- 218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전쟁터인 여리고
- 219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를
- 220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 221 신실한 자의 태도
- 222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빛진 자이다.
- 223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라
- 224 주의하고 신중하라
- 225 잘 다스린다는 것은 인격이다
- 226 소금같은 인격
- 227 신중하게
- 228 분별력
- 229 성숙한 질문
- 230 시간을 아끼는 지혜
- 231 평안한 잠으로
- 232 소금의 순수함을 지켰는가

1) 나는 누구인가

209 새로운 피조물, 제사장,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천사나 인간의 추천이나 그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거듭난 성도 ((세계관,가치관,인생관,생활관의 확립)

-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다.
- 영원한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
-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 부활하신 주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
-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유업이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
-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거듭난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이다. 만일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그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이 만든 것을 대단히 여기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주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 15:16)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210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신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주는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음의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신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 55:6-11)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 6:18)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211 자신을 살피라

자신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자신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내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다른 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의 결과를 보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풍요로움을 얻으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일 4: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렘 23:16)

212 동기를 점검하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선한 동기인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는가?

마음을 살피고 다시 기도하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가?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유혹에 빠지고 있는가?
 좌우로 치우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내 눈에 좋은 대로 따르지 말라. 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다. 말씀은 물이나 불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통과하며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셨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사 43:1-3)

213 행위를 생각해 보라.

- 1) 천국 건설자인가, 파괴자인가?
- 2) 배우는 자세인가, 가르치는 자세인가?
- 3) 사랑으로냐, 미움으로냐?
- 4) 가진 것을 나누는가, 사욕인가?
- 5) 충성인가, 배반인가?
- 6) 말씀의 지혜를 따르는가, 내 방법을 따르는가?
- 7) 희생적인가, 이기적인가?
- 8) 투자인가, 투기인가?
- 9) 공평한가, 불공평한가?
- 10) 정직한가, 거짓인가?
- 11) 처녀인가, 창녀인가?

내가 오늘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생각해 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3-1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6-48)

2) 나는 어디에 있는가

214 어떤 환경에도 주를 의지하라

거듭난 성도의 삶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지속적인 여정이다. 내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홍해 앞에 서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내 힘으로 강하고 무서운 이집트 군대와 같은 대적과 싸우려 하는가? 하나님은 적들과 어떻게 싸울지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의 현황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기다림, 경청, 순종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세상 일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성취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7-18)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6-17)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6)

215 광야는 누구나 통과해야 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광야를 헤쳐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 나가는지를 알고 있는가? 각자가 자신만의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그것은 예외가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례자이며,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8:1-4)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찌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찌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잠 3:5-8)

216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하라. 모든 신들의 신, 참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다. 헌신과 믿음이 승리를 간증하게 하며, 순종은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이 말을 하고, 그것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한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기도로 찾아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 15:18-20)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행 8:26-27)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행 8:39)

3) 자신을 이기라

217 내 마음은 여리고 성과 같다

여리고 성(나 자신) 정복이 내가 해야 할 일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속에도 계신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불만, 불평, 지도자를 비방하며 원망만 했다. 회개하라. 변화되라. 새롭게 하라. 믿음으로 축복의 문을 열라.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중력과 같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온다. 다른 것들은 계속 바꾸어야 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수 24:3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1:11-12)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6-39)

218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전쟁터인 여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첫 번째로 승리해야 할 전쟁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피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을 회피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승리도 없을 것이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전쟁터인 '여리고'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이후의 전쟁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내가 옛 모습을 믿음으로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버릴 때까지, 나의 옛 성품과 옛 자아는 원수와 함께 나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수 6:2-4)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1:12)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19-20)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219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를

세상을 이기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주를 초대하고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라. 내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지 않으며, 과거는 고칠 수 없다. 장래도 아직 여기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그를 초대하여 함께 하고 그를 위해 살아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마치 중력처럼 나를 끌어내리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 회개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기도함으로써, 지금 나의 전쟁터인 마음에 그리스도를 초청하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보물을 찾아라.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선포하라. 믿음, 순종, 실천하는 자는 살아 있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변함없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유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어려운 시기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 32:6)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려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34:7-1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4) 삶의 목적과 태도

220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왜 공부하는가?

왜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왜 사업을 하는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나?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가?

주의 뜻을 무시하고 이루는 성공은 소돔과 고모라를 건축하는 것과 같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의 율법을 믿고 따르면 먹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살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28-31)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일 5:4-5)

221 신실한 자의 태도

- a) 나를 자녀로 삼으신 주께 감사
- b) 나를 죄에서 구속하심을 감사
- c)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심을 감사
- d)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
- e)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함
- f) 범사에 주가 함께 하심을 인정함
- g)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
- h) 교만하지 않음
- i) 주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남
- j) 내 소유로 주를 섬김
- k) 합당한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림
- l) 주의 명령을 묵상하고 지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전 5:16-22)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전 1:17)

5)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라

222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빚진 자이다.

오늘날의 내가 있기까지 도와준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자. 내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이들을 되돌아보자. 자신의 철학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모든 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죄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죄가 들어오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파괴가 아닌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주아로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2 제단을 세우자.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축복의 주를 체험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5)

내 백성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 2: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눅 16:15)

223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라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득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디에 계셨는지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물어보고 응답을 기다려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1-7)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으로라
(요 15:16-17)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224 주의하고 신중하라

주의 깊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라. 물 위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일을 신중히 생각하라.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여러 번 확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석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 세심하게 계획하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수 1:8)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수 9:14)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사 62:10)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락을 베풀고 전쟁할찌니라 (잠 20:18)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 16:3)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5-27)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 10:24)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 11:30)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4:12)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잠 19:2)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 3:1)

6) 인격을 키우라

225 잘 다스린다는 것은 인격이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정책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격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모든 일을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 의인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세상의 방식이나 단순한 선행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축복된 나라이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 권세를 통해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인격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전 2:9-10)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 6:22-27)

226 소금같은 인격

순수함 그 자체가 능력의 역할이다

소금의 존재가 가진 능력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금처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소금은 그 자체의 순수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한다. 소금의 존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 5:13)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 4:5-6)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일 3:21-24)

227 신중하게

첫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면, 이것은 내가 첫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일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흐를 것이다. 주인이 종일 밭에서 일한 하인에게 '앉아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인이 순종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해하는가? 나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한 후에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을 할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성령이 역사하는 간증을 만들어 가라.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이다. 나는 말씀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말하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5)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전 5:16-18)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4-15)

228 분별력

많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살아간다. 진실과 거짓, 사실과 오해, 사랑과 증오, 정의와 불의, 투자와 도박 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다: '알곡을 모아 천국에 들이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곧 다시 오실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며, 지키고, 읽고, 실천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 15:19)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롬 1:28-31)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2 Tim 3:2-6)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5)

229 성숙한 질문

왜 질문을 하는가? 질문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다니엘과 니고데모가 예수께 한 질문과 그 대답의 차이에 주목하라. 니고데모는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물었고, 나다니엘은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때 선입견을 버리고 성숙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찾아라.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나의 의견이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보이지 않고, 전능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행했는지, 믿었는지, 순종했는지를 묻는다. 토론은 더 많은 토론으로만 이어지며 해답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삶과 역사의 기록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 3:4)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 1:48)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 139:1-4)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3b)

230 시간을 아끼는 지혜

•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보호하라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며,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삶이 소중하게, 또는 가치 없게 되는 것은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보호하자. 시간은 마치 ‘새벽이슬’과 같다; 젖소가 마시면 젖이 나오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나온다.

무엇이 나를 좌절시키는지 생각하라. 나의 열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계획하고, 소망을 키워라.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며 준비하라.

모든 물 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사 32:20)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 6:6)

곤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잠 30:25)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잠 6:9-11)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7) 자기 전 성찰

231 평안한 잠으로

취침 전에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올바른 길을 걸었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선한 싸움을 벌였는지 점검하라. 회개하고, 바로잡고, 배우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잠들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엡 4:26-27)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멸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 4:3-4)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 63:6-8)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7)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3-34)

232 소금의 순수함을 지켰는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 ✓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었는가?
- ✓ 말씀대로 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 ✓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회개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였는가?
- ✓ 희망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였는가?
- ✓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계명을 지켰는가?
- ✓ 주와 동행하며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실천했는가?
- ✓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힘은 하는 일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지키는 데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 5:13)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 4:6)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막 9:50)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찌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찌니라 (레 2:13)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 14:2)

K 방향

233 선택

234 구별된 자의 길

235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236 조건 있는 축복

237 순종이 있는 믿음

238 정상적으로 하라

239 성령께 말기라

240 축복된 믿음의 열린 길

241 누구의 일인가

242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243 성도의 승리를 통한 성공

244 누구의 영광을

245 여호수아 전략과 기도 응답으로

246 목표를 이루기위해 주의할것

247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

248 창대해지는 미약한 시작

249 훨씬 더 크신 분

1) 두 길

233 선택

순종과 불순종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계명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다.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말씀을 믿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불순종할 경우, 사탄은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사탄의 대상이 된다. 달란트의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가? 나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인가? 선택은 내 손에 있다.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보상은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렘 21:8)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4:12)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 11:26-28)

234 구별된 자의 길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름없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주 안에서 교회나 선교의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며,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죄로 보고 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 2:13)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롬 14:22-23)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약 4:17)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롬 6:12-14)

235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에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간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3-5)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롬 12:9)

236 조건 있는 축복

나오미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룯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방문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발견한 것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하기를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 28: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22)

237 순종이 있는 믿음

우리는 말씀을 따르며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어떤 문을 열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탐욕은 죄악이며, 이로 인해 타인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한 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반영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 2:13-14)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딤후 2:20-21)

238 정상적으로 하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그만두고 반성하라.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자신들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큰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라.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못 보게 된 리브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국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말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창 27:42)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웃사를 죽음으로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역사 13:9-11)

239 성령께 말기라

결론을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 말기라. 믿음의 일을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진정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 성령을 따르며,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24-27)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 4:2)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딤후 2: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너희 영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벧전 5:7)

240 축복된 믿음의 열린 길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언제 왔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열린 길을 찾아보라. 하나님은 믿음의 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은 오직 믿음의 길을 통해 온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말씀은 기적과 표적을 가져 온다. 나의 믿음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진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6-1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요 11:40)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 17:20)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7-18)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 5:16-17)

241 누구의 일인가

일을 내 생각과 돈으로만 이루면 그것은 내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완성해야 한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은 경주를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렘 2:17)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 16:18)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4:12)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3-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딤후 2:5)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대상 13:7-10)

내 아들이라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창 27:43-44)

242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쌓지 말라. 부활하신 주를 위한 것이 아닌 사역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교제”, “정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미 얻은 것을 다시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잡으니”(요 20:16)라고 부를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영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의 의미를 알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0-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줄 알지 못하더라 . . .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요 20:15-16)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 8:34-35)

L 승리과 성공

243 성도의 승리를 통한 성공

244 누구의 영광을

245 여호수아 전략과 기도 응답으로

246 목표를 이루기위해 주의할것

247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

248 창대해지는 미약한 시작

249 훨씬 더 크신 분

243 성도의 승리를 통한 성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처럼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성도는 승리를 통해 성공을 이룬다. 성공과
승리를 분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 축복을 간직하며, 누가 나에게 승리를
주는지, 성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인지하고,
첫사랑의 열정을 잃지 않으며 순종과 인내로
열매를 맺어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8)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3)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 10:22)

244 누구의 영광을

성공이 돈으로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일이다. 반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성공은 하나님의 일이다. 돈으로 이룬 성공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가? 세속적인 성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성공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보상을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하라. 나는 어떤 힘을 사용해 일하고 있는가? 어떤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가? 희망을 잃지 말고, 여정의 끝이 가까워짐을 알고, 찬양과 감사로 목표를 달성하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방향을 잡고 전략을 세워 목표를 이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갈 5:6)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갈 6:7-10)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 21:1-2)

245 여호수아 전략과 기도 응답으로

현명하게 행동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업 파트너를 찾을 때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호수아가 전략과 기도의 힘을 함께 사용한 것을 기억하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라.

나는 믿고 신뢰했는가?

나는 순종했는가?

나는 시간을 낭비했는가?

나는 나누었는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했는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셨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삼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족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찌니라 (수 1:9-15)

246 목표를 이루기위해 주의할것

- 1)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자.
- 2) 계획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연구를 통해 판단하자.
- 3) 비전을 구체화하여 계획을 세우자.
- 4) 계획은 한 페이지 안에 요약 가능하도록 정리하자.
- 5)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고 함께 하는 방법을 익히자.
- 6) 기도를 통해 주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자.
- 7) 기도를 통해 준비하고 주님의 답변을 기다리자.
- 8) 어느 누구를 위해, 어느 누구의 능력으로 행동하는지 스스로 점검하자.
- 9)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는 "새벽이슬 제자"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라.
- 10) 거지, 고아, 병자의 존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 11) 구제 사역과 부르심을 명확히 구분하자.
- 12)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 13) 우선순위 설정은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자.
- 14) 무엇이든 시작은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하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우리를 돌봐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시간 낭비이며, 지속성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일과 성과는 원수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경계하자.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의 행할 처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5-27)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 15:22)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찌니라 (잠 20:18)

247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는 주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으며,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없다. 만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진 것이며, 주를 믿는 이들에게는 선물로 주신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면, 빛이 오고 어둠이 사라진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난다. 죽은 자가 생명으로 일어나며, 의로운 영이 안에서 솟아온다. 생명의 바람이 잃어버린 꿈을 되살리며, 기쁨으로 다시 타오른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을 따르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3)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5-16)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썩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 16:4)

248 창대해지는 미악한 시작

지식, 경험, 이성, 돈이나 상식에만 의존하여 믿음을 사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방식대로 추론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라. 시작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을 창대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겸손한 시작이었지만, 오늘날에도 그 영향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 조심하고 인내해야 한다. 마귀는 성급하고 빠르고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유혹한다. 적절한 시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창 12:2)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뭇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3:3-4)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잠 4:19)

네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6-27)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벧전 5:8-9)

249 훨씬 더 크신 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자연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능력을 드러낸다. 역사, 자연, 내 마음속,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은
 부유함이나 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이는 마치 깊고,
 넓고, 높으며, 뜨겁고, 폭풍 같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과 같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단 9:4)

내가 볼때에 그 발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 1:17)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시 8: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시 103:1)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18: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 145:1)

M 사랑

- 250 빛으로 나타나는 사랑
- 251 원수를 발등상 되게 만드는 자
- 252 사탄은 사랑으로 하는 일을 모른다
- 253 말씀은 사랑이다
- 254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255 첫 사랑을 회복하라
- 256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 257 무관심
- 258 사랑은 동정이 아닌 선물이다
- 259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
- 260 하나님의 일은 필요할 때 구하고 받아서
- 261 사랑은 기부와 다르다
- 262 사랑은 자세하며 작은 것에 숨겨져 있다
- 263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신다
- 264 마음의 신비
- 265 사랑의 마지막 기회
- 266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 267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사랑의 사람
- 268 주를 사랑하는 마음
- 269 사랑은 행동을 필요로 한다
- 27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 271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 272 받으시는 섬김
- 273 은밀히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 274 나눔의 동기가 무엇인가?
- 275 받으시는 나눔
- 276 주 안에서 나타난 조건 없는 룯의 사랑

1) 모든 것을 사랑의 힘으로

250 빛으로 나타나는 사랑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다. 예언하는 능력을 갖추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슬람교도, 불교도,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인류에 대한 헌신은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며, 무엇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어떤 것들이 사탄의 도구로서 이를 파괴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랑은 하늘에서 오는 은사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7-8)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흠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흠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겔 34:11-1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7)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6)

251 원수를 발등상 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에는 거룩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랑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죽은 것이며, 하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3 장에 설명된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은사다. 이 사랑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의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위로부터 흘러오는 선물이며, 능력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 28: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3-34)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전 12:31)

252 사탄은 사랑으로 하는 일을 모른다

마귀는 큰 계획을 세우고 큰일도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일은 못한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를 수도 없다. 사탄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지 못하며,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혀를 조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는가?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자세히 말씀하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앓고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종교나 사회 활동과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 사랑으로 증거되게 하라.

주께서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 139:2-4)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 4:8-9)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 18:20)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약 3:6)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

253 말씀은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담긴 율법이며,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기록이다.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다. 율법은 깨달은 사람에게 참된 사랑의 길을 가르친다.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9:24)

나 여호와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 3: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 6:6)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호 8:1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Mt 22:37-39)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254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위로부터 온 사랑의 능력을 받은 자는 불의를 이길 수 있고, 공의를 실천하며, 성령과 동행한다. 이 사랑은 온 세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알며,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 장소, 상황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한다. 참사랑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사람을 은혜로 섬기고 서로 친구가 되어 악을 멀리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며,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비방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다. 참사랑은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남을 돕는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고, 도움 방법을 분별하며,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7-19)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6)

255 첫 사랑을 회복하라

기도로 첫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산 제물로 사는 기쁨의 비밀을 체험하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연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 속에서 찾아보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는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거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이다. 그 사람이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이 될 수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전 5:1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롬 12:9)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벧전 1:22)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후 5:9)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256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사랑의 깊이, 고통, 그리고 기쁨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러한 감정의 깊이와 정도는 오직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각기 다른 경험과 감정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도 이를 비교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 절대적인 비교나 측정은 불가능하며, 같은 표현이라도 그 경험의 깊이와 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며, 이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창조주는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렘 9:24)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2-14)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7-10)

2)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257 무관심

무관심은 소망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태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무관심은 중립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것을 토해내신다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일에는 즐거움을 느끼며 기쁘게 순종하고, 그 결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은 저주를 초래한다. 사랑하든 미워하든 중도에 있지 말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하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1:2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8)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렘 17:9-1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 3:19)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 2:6)

258 사랑은 동정이 아닌 선물이다

사랑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오는 선물이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처럼 넘쳐흐른다. 이는 마치 플러그를 꽂아 전기가 흐르는 것과 같다. 전기가 언제 흐르는가? 사랑의 순종은 세상이나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는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게 한다.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라.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졌는지보다 누가 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라. 사랑은 단순한 친절과는 다르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오는 은사이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딤후 1:5)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6-17)

259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이 있다. 나도 모르게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이 사랑의 영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 그러므로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이다. 사도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게 준 것이 율법이 아닌, 공의가 있는 거룩한 사랑이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야 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참된 사랑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쁨을 선사하시며, 이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내려주신다. 타인을 돕는 것은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6-17)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단 9:4)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썩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마 15:13-14)

260 하나님의 일은 필요할 때 구하고 받아서

세상은 자원을 창고에 쌓아 두고 필요할 때 나누어 주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 저장한 후 나중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늘의 창고에서 받은 것을 적시에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받은 사랑을 오래 저장해 두기보다는, 그 사랑을 필요한 순간에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의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능력과 사랑을 적절히 공급하신다. 간구하여 받고, 받은 것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8:2-4)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3-34)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롬 8:32)

261 사랑은 기부와 다르다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나누며 말씀을 따른다.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나누는 것은 단지 그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은 단순한 기부와는 다르다. 말씀 안에서 무엇이 정의로운지 분별하여 사랑을 나누어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도울지 말씀 안에서 찾아보라.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힘에 의존한다면 일시적인 도움만 제공할 뿐,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며 성령과 동행하게 한다. 이 사랑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고 슬픈 시간도 기쁨으로 극복하게 하고, 끊임없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 성령의 은사인 참된 사랑은 마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적시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인 이유이다. 하늘에서 오는 사랑의 은사는 선하고 강력하며, 악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 4:20)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전 6:1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6)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일 4:18)

262 사랑은 자세하며 작은 것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하시고, 사랑 안에서 인내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풍성한 삶으로 이끄신다. 반면에 마귀는 큰 것을 말하며 탐욕을 일으켜 결국 멸망으로 이끈다. 무엇이 나를 이끄는가?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작은 것에도 귀 기울여 듣는다. 내 안에 이를 들을 귀가 있는가? 첫사랑을 되새겨 보아라.

가족들과 사랑을 함께 나눌 때, 큰일에만 기쁨을 느끼는가? 작은 일에도 기쁨을 나누지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만 알았선 안 되며,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 19:12)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4:17)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 2:1-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 84: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 145:1)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4)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요 15:16m)

263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신다

자급자족하라. 구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넘쳐흐르도록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마음에 주신 소망을 분명히 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길을 찾으며,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순종을 통한 승리로 열매를 나누고,
자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립하는 제자를 양성하여 사명을 완수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뒹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 62:10)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굳게 살피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5-2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264 마음의 신비

• 전심을 다 해 섬기라

마음은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마음은 주어도, 늙지 않는다

마음은 주어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줄수록 더욱 풍성하고, 쓸수록 더욱 새로워진다

마음은 주지 않고 있으면, 시들어 버린다

마음은 주지 않고 있으면, 말라 버린다

마음은 주지 않고 있으면, 삭아 버린다

마음은 주지 않고 있으면, 굳어져 버린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3-
24)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금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흠을 얻은 자니라 (벧전 2:9-10)

265 사랑의 마지막 기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바로 죽지 않고 때때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일 수 있다.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8-1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266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인내한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풍성하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권세가 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일 2:15-
16)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일 4:7-9)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딤후 1:5)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7)

267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사랑의 사람

하나님께서서는 첫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찾으시며,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 성경은 이러한 사랑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첫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의 계획을 담고 있다. 사랑은 그 마음의 깊이와 높이, 넓이, 길이를 체험하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의 품격과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깊이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7-1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 4:23-24)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8-19)

268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의 일을 알고 그것에 기뻐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도 충실하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을 아는 것이 큰 기쁨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에 따라 행하고 그것을 지킨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찬양의 제물을 드린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증거되며,
사랑의 순종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체험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1-17)

3)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269 사랑은 행동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사랑은 단순히 알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넘치는 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있으면,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것은 넘치고 강력하며 풍성한 참사랑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참된 사랑의 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넘치고 강력하며 풍성한 사랑은 하늘로부터의 선물임을 잊지 마라. 사랑은 행동을 필요로 하며, 행동 없는 사랑은 사실상 죽은 것과 같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담후 1:7)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 4:23-24)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2-13)

27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 1)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 2) 온전히 받으시는 준비된 예배,
- 3)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된 감사의 희생제물,
- 4) 섞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 5) 복음을 전파하는 일,
- 6)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
- 7) 내가 걷고 있는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 8) 지도를 보며 기도하는 것,
- 9)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믿음과 순종으로 일하는 것,
- 10)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며,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
- 11) 주린 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출 20:24a)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창 8:20)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마 24:45)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b)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암
5:25)

271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 1)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준비된 성소
- 2)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 3)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 4) 영적인 제자를 만드는 자
- 5)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 6)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볼 때
- 7)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의 음성
- 8)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
- 9)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무엇이 성소인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곳이 예배드리기 합당한 성소이다. 말씀으로 씻겨진 성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 합당한 곳이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출 20:24a)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7)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8b)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b)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3)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전 5:16-19)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짐이라 (딤후 4:5)

272 받으시는 섬김

주님께서 받으시는 도움은 단지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필요에 따라 돕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돕는 것뿐이다. 세상 사람들도 한다. 부분적인 도움은 완전한 섬김이 아니다. 온전한 섬김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하는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8)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45)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눅 10:27)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3-4)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40)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눅 10:34-35)

273 은밀히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섬기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섬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한 섬김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근심하는 사람,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봉사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는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엘리야가 가뭄중 사르밧의 과부를 찾아갔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누어야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것이 상황에 따라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부족함 속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4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눅 16:10)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 14:31)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 19:17)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1-42)

274 나눔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보라. 하나님은 마른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오게 하셔서 강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를 제공하셨다. 하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없겠는가? 전심으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 축복과 저주의 길을 선포했다. 나는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길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선교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제자를 만드는 자다. 나는 선교사인가, 자선사업자인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벧후 2:22)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딤후 2:20-22)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275 받으시는 나눔

마음을 다하여 나누고, 사용하고, 베풀라. 필요한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나누라. 타인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누라. 예수가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순종하는가 생각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가뭄을 대비해 자원을 모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축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뭄을 대비해 자원을 모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를 나누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한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주어진 지혜와 기도, 그리고 순종을 통해 준비하며,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눅 22:43-46)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 1:14)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2-45)

276 주 안에서 나타난 조건 없는 룯의 사랑

룯의 이야기는 ‘새벽이슬’ 같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증이다. 룯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자신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존중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룯의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은 우리가 사역할 때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우리도 그녀처럼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룯은 늙고 나약한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예다. 반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오해와 잘못된 믿음을 반영한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종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점검해야 한다

룯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함을 보였다. 그녀는 마음을 다해 이삭을 주워,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극복했고, 땀 흘려 일했다.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과 나오미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룯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는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는가? 룯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그녀가 받았던 축복을 나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룯 1:16-17)

N 순종

277 여호와를 경외함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278 순종과 불순종은 나의 선택

279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280 말씀을 희석하지 말라

281 나의 믿음을 보여라

282 모세는 순종한 것뿐이다

283 순종으로 기쁨의 열매를 맛보라

284 들은 것을 순종하라

285 순종의 열매를 맺어라

277 여호와를 경외함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세상의 일들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은 순종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의 시기를 이해하고 인지하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나를 축복하시는지. 또한, 누구를 통해 그리고 어떻게 축복을 가져오시는지도 알라. 하나님의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축복하는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 1: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4-29)

278 순종과 불순종은 나의 선택

성령은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사탄은 저주의 말씀으로 이끈다. 순종은 축복의 말씀을 실현하고, 불순종은 저주의 말씀을 실현한다. 순종은 사랑을 찾고, 불순종은 저주를 찾는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불순종은 사탄의 뜻을 이룬다. 순종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길을 떠나는 것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심판은 내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들, 즉 영생의 길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과연 순종의 길, 복된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 3:1-10)

279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 마치 교회에서 밧줄을 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의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세상에서 기회가 생기면, 그 줄을 놓고 세상으로 달려간다. 세상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밑에서부터 다시 밧줄을 잡는다. 밧줄만 잡고 있다가 삶을 끝낼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 토론은 또 다른 토론으로 이어질 뿐, 답을 주지 않는다. 모든 응답의 주인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것인지 묻고 계신다. 순종할 때 응답을 찾을 것이다. 믿음, 순종, 회개와 인내는 열매와 구원을 맺는다.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의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신 28:1-2)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딤후 6:10-11)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딤후 6:17-19)

280 말씀을 회석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이론, 생각, 의견이나 노력이 아닌 순종을 원하신다. 세상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의 일이 회석되는 것을 싫어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울 왕과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보라. 다윗 왕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웃사가 죽었고, 다윗의 기쁨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바뀌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 ‘내가 바로 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인줄 알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일 5:1-8)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281 나의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셨으며, 그들을 기적을 통해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왕별까지 보내어 그들의 원수를 전멸시키셨지만, 보는 눈이나 깨닫는 마음,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며, 나로 하여금 순종하고 신뢰하게 하시길 바라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여라.

그가 말하기를 돌우고 돌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 훈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로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 57:14-21)

282 모세는 순종한 것뿐이다

모세의 순종을 깊이 생각하라. 80 세 된 그는 양치는 목자의 안정된 삶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종이 되어라. 아는 것을 순종하고, 들은 것을 나누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 4:4)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출 14:13-15)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 18-18-19)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 40:16)

283 순종으로 기쁨의 열매를 맛보라

이유를 대지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몸과 마음을 씻어라. 온전히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나의 곁에도 계신다.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주님을 초대하여 모셔라. 그러면 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밟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이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주셨고,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도 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2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2-1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284 들은 것을 순종하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하셨다. 성령의 명령에 따라 그가 곧 광야로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마리아에서 즉시 광야로 옮기셨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건강을 지키는 이유, 사업을 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순종을 명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절대적 진리가 개인적인 간증이 되고, 그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4:24-27)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의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 28:1)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벧후 3:10)

285 순종의 열매를 맺어라

진정한 제자는 주어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이며, 믿음에 따라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이다. 독선과 교만으로 행동하며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락방의 120 명의 제자들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흘렀기 때문이다. 열정을 잃지 말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번영하고 충만한 삶을 살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순종은 모든 것을 반석 위에 세우며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의를 가르친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풀처럼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기록된 바와 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전 1:14)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렘 17:7-8)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붙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 40:7-8)

0 동행

- 286 무소 부재하신 주
- 287 말씀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라
- 288 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
- 289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 290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 291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 292 구별되었는지 살피라
- 293 선택받은 자
- 294 받으시는 자
- 295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 296 하나님의 능력으로
- 297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 298 주의 초대하심을 들으라
- 299 말씀으로 조율하고 자유하라
- 300 “주를 사랑합니다”가 정상적인 고백이다
- 301 믿음으로 새롭게 하라
- 302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 303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304 믿음으로 믿음을 회복하라
- 305 절름발이 믿음의 치유
- 306 회개하라, 온전한 회개가 문을 연다
- 307 말씀을 따라 회개하라
- 308 물로 죄를 씻으라
- 309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
- 310 자유의지를 지키라
- 311 나의 정체성에 집중
- 312 맡겨진 일에 집중
- 313 깨어서 휴거를 준비하라.
- 314 받으시는 매일의 삶 (5A)
- 315 나누고 살피는 청지기
- 316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 317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1)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286 무소 부재하신 주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과거에만 계셨던 분으로 여기거나, 먼 곳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초대하지 않으며, 마음이 부정하고, 눈과 귀가 닫혀 살아계신 말씀에 의심을 품어 주께서 곁에 계셔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믿음의 비밀은 '믿음의 길'을 따르면서 시작된다. 우리가 생각의 문을 열면, 말씀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도 계신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말씀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심령 안에도 거하신다. '새벽이슬'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앞에 모신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써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이해하며, 이해한 것을 믿고 따르도록 하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렘 23:24)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마 8:1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287 말씀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라

말씀을 믿는 자는 믿는 대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것이다. 천국은 내 안에 있다. 복된 길을 걸으며 ‘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는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며, 내 마음에 주를 초청하며, 모든 것에서 주를 인정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지켜 보신다.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라.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세기 1 장) 균형 잡힌 삶이다. 균형 잡힌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삶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의 때와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안에서 나를 통해 흐르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과거에 어떻게 어려움, 위험, 부족함에서 인도하셨는지 묵상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6b)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 16:8)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 17:21)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 16:2)

288 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참된 지식과 지혜를 찾는 길이며, 생명과 건강, 부와 명예를 얻는 길이다. 주를 경외하면 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보물을 열 수 있다. 경외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끈다. 이것은 삶의 회복을 가르치고, 우리의 행위를 영원한 책에 기록하도록 한다.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획을 세우라. 풍성한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라.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증거이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3)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 19:9)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 111: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 14:26-27)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289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목자이시며,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다. 묵상과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어라. 들을 때까지 묵상하는 연습을 해라. 몽학 선생의 자리에 만족하지 말라. 내 방법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흐리지 말라. 그것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 37:4)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 40:8)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 119:24)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 58:13-1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9:24)

290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과 뉴스를 통해서도 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지금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가? 위급할 때만 찾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말씀은 절대 변치 않는다. 나의 마음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미쁘다 이 말이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딤후 2:11-13)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 6:17-18)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0-23)

291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뜻이다. 감정은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유혹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오로지 용서와 사랑뿐이다. 이를 명심하자.

사랑은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며,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무례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아야 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자.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6-33)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눅 16:17)

2) 구별된 자로

292 구별되었는지 살피라

나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어떤 이유로 바쁜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교회 일이나 선교사역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나 내 단체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내가 하는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지를 구분하라.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의 일들과 무엇이 다른가 확인하라.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6)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 1:10)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막 7:6-8)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2-23)

293 선택받은 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나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죄의 고통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홀로 선택하시며, 오랫동안 참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고,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으며, 오는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누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는가?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누가 예수님을 그 여인에게 보냈는가?

오늘 나의 진실함이 내일 축복의 길을 걷게 한다는 말이 있다. 축복과 선물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오늘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사 48:17-18)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294 받으시는 자

선한 일꾼은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고 주인을 기다린다. 그리고 맡은 일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수행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다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참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된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받아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자.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 1:16-17)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 2:13-16)

3) 구별된 증거로

295 그리스도 안에서 의 삶

인생은 한 번이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

- 1)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
- 2)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같이 하지 말라.
- 3) 하나님이 구별하고 택하신 증거를 붙들라.
- 4)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 5) 비평과 비난을 삼가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다. 다섯 남편을 둔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하나님이시다.
- 6)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의 모범을 보이라.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 7) 부지런하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 8)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난한가? 돈이 부족하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첫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 9) 오늘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6-4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296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예언의 선물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하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낮은 사람, 말씀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인간의 능력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능력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다윗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했고, 그분을 '나의 힘'이라고 선포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늦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 18:28-35)

297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치유가 임할 것이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치유가 임할 것이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온전한 능력을 구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 10:12-13)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멸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28-31)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막 16:17-19)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3-15)

4) 회복하여 주를 모시고

298 주의 초대하심을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을 가져야 한다. 전심으로 부지런히 부활하신 주를 찾아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믿고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사랑이다. 첫사랑은 항상 첫사랑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내가 들은 것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 57:15)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1:1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8)

299 말씀으로 조율하고 자유하라

들은 말씀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배신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을 알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단순히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와 같다. 계획 없이 일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아서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멀게 하며, 죽음의 길로 이끈다. 죄의 노예로 만든다. 주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게으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 얻은 것 중에서 선별하여 하나님께 받으실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께서 받으신 제사는 축복의 문을 열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7)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 8:20-22)

다윗이 은 오십 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삼하 24:25)

300 “주를 사랑합니다”가 정상적인 고백이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완벽한 자연 환경을 창조하셨다. 그분의 사랑, 공의, 그리고 정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는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셨다. '주를 좋아합니다'가 아니라 '주를 사랑합니다'가 올바른 고백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 3:16-18)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1-17)

301 믿음으로 새롭게 하라

성령의 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믿음의 본질과 입증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겸손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대응하라. 첫사랑의 신앙을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 찾아라. 나의 고백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때 나의 영을 새롭게 한다.

- 1)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하는가?
- 2)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임을 믿는가?
- 3)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는가?
- 4)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가?
- 5)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가?
- 6)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을 믿는가?
- 7) 나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믿는가?
- 8) 나는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끝까지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믿는가?
- 9) 나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 10) 나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심을 믿는가?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 4:2b)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4-15)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6)

302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영의 사람이 되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참고서가 아니다. 나는 말씀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가?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열두 제자 중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제자 빌립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광야로 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새벽이슬”이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11-25)

303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간구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 기도하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전심으로 간구하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고, 회개와 영혼 구원에 전념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만이 회개하게 할 수 있고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질서 있는 예배와 감사를 드리라. 사랑의 교제로 하나됨을 지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2-4)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8)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1-3)

304 믿음으로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씨앗의 의미는 무엇일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겨자씨를 심고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 잠언 31 장은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반석 위에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라. 그것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없어질 바벨탑을 세우지 말라.

사도 베드로를 기억하라. 그가 물 위를 걸었으나 믿음이 부족하여 물속에 빠졌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일은 대적의 손에 넘겨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잠 31:10)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 14:28-31)

305 절름발이 믿음의 치유

절름발이 믿음은 실격자이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절름발이 믿음이 된다. 같은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하며 말하는 것은 절름발이 믿음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절름발이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절름발이 믿음은 실격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절름발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놓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의 음성에 순종할 때 온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우리는 매일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며 시간과 한계를 분별하며 절름발이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인 절름발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절름발이 믿음에 빠져 결국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예를 기억하며 불평하는 절름발이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신 1:26-27)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시 78:9)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약 1:6-8)

5) 오래 묵은 땅을 갈아엎고

306 회개하라, 온전한 회개가 문을 연다

스스로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내 고집, 행위, 이기적인 행동, 고집스러운 마음, 명성과 성공을 위해 말씀 밖에서 행한 것들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 말씀을 혼동케 하는 것,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회개로 갈아엎어라.

다른 사람을 나의 이론으로 판단하지 말고,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마라. 주의 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라. 주의 일을 한다고 몸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눅 16:15)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 5: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 12:36)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 2:13)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307 말씀을 따라 회개하라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마음속 깊이 회개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즉시 순종하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묵상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라.

우리의 죄, 악화된 본성은, 중력과 같아서 계속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되려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온다. 다른 모든 것은 임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축복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하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 안에서 이미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찾아 얻으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4-18)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일 5:5)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2)

308 물로 죄를 씻으라

말씀이 무엇인가

피로 얼룩을 제거할 수 있을까? 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 씻는 것은 물이다.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어떻게 물로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곳에 동일하게 계시며, 영원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육신을 만족시키려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6-27)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일 5:6-8)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 15:3)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전 3:19)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 14:2)

6) 자세를 새롭게 하고

309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

우리의 과거는 구부러진 파이프와 같다. 파이프가 많이 구부러졌어도 물은 파이프를 따라 흐른다. 회개로 파이프를 청소하라. 축복이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을 제거하라. 내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은 구부러진 것이 아니고, 막힌 것이다. 막힌 파이프 사이에 고인 물을 청소하지 않으면 파이프는 결국 터지게 된다. 생수가 흐르게 하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라.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 59: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요 2:5-8)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5-16)

310 자유의지를 지키라

자유의지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자유의지 외에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것이다. 자유의지가 곧 나의 정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창조주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수는 그것을 훔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예서와 같이 그 가치를 헛되이 하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라.

자유의지와 순종을 사랑의 고리로 연결하라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의 능력은 순종함으로 온다. 사울은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와 스데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전 3:11)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3:17)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 13:44)

311 나의 정체성에 집중

내가 해야 할 일은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다. 모세에게는 홍해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는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기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일의 결과와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설계자가 아니라, 건설하는 일꾼이다. 나는 그 청사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모세의 광야 사역은 노력이 아닌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의 정신으로 성취된다. 창세기와 십계명의 교훈은 힘들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과 업적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은 영원한 상급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다.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기억하라. 순종을 통해 믿음을 증거하고, 마음에 주신 소망을 이루도록 하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 25:28)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10:29)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 40:16)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 29:4)

312 말겨진 일에 집중

우리는 주의 종이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에 따른 결과와 만족을 주실 것이다. 결과를 말기고 달려라. 실패나 재난이 닥쳤을 때,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악에 대해 분노 하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라.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라. 나는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기초는 반석이신 말씀인가?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은 곧 무너질 것임을 기억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 55: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 8:13)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24-27)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흄으리라 하시니 (마 21:44)

7) 휴거를 대비하며

313 깨어서 휴거를 준비하라.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선행은 빛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터 나타나는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는 선행의 심지가 있어야 한다.

휴거 때가 오면, 큰 심판의 환난이 오기 전에 천사들이 캄캄한 세상에서 발하는 선행의 빛을 보고 빛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날마다 주께 합당한 제사를 드린 고별료처럼 (성도의 선행은 고별료의 빛과 같이 나타난다)너의 삶을 채우라.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7)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욥 2:30)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 7:18)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5-16)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 2:14-16)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엡 5:13)

314 받으시는 매일의 삶 (5A)

- 1) 받으시는 희생 (Acceptable sacrifice)
- 2) 받으시는 기도 (Acceptable prayer)
- 3) 받으시는 예배 (Acceptable worship)
- 4) 받으시는 순종 - “주를 경외함”
(Acceptable obedience - “Fear of the Lord”)
- 5) 받으시는 “이웃 사랑” (Acceptable love your neighbor)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성령은 기름이며, 우리의 순종은 기름을 태워 빛을 비추게 한다. 네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희생(구별+준비+정성)

기도(정결한 마음+말씀+믿음+그리스도 이름)

예배(신령 +진정)

순종(기쁨+감사+시간)

이웃 사랑(내몸같이+내일처럼)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 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사 43:23)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암 5:25)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말 1: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7)

315 나누고 살피는 청지기

매일의 나누는 매일의 삶 (5 daily practice)

- 1) 복음을 나눈다
- 2) 축복을 나눈다
- 3) 사랑을 나눈다
- 4) 마음을 함께한다
- 5) 말씀을 심는다

돕는 사역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돕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상급을 예비하신다. 주만 알도록 선한 일을 은밀히 하라. 참 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되, 더 많이 주시면 나누라는 뜻이다. 탐욕은 부패의 시작이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 3:13)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12)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5)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 6:2)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눅 6:31)

316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세대가 가장 복된 세대이다. 재림 전의 징조와 시기를 아는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때 원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재림 전에 예루살렘에 제 3 성전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며, 성령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리를 저버릴 것이며, 종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예수가 재림할 날짜를 말하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이다. 주술사, 마법사, 치료사, 제사장들도 그날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며 재림을 준비하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깨어 있는 삶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라.

상급의 시대

천년 왕국은 열매 맺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상급의 시대이다. 기도로 주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전 1:10)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전 4:17)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고전 15:51)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찌라 (데전 5:4-6)

317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며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주의 성전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나를 통해 하늘의 빛을 비추라.

천국에는 평화가 있다.
천국에는 기쁨이 있다.
천국에는 패배가 없다.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국이 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회개하고 이기심을 버리라.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라. 첫사랑으로 더 깊고 온전한 희생을 드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게 배우고 실천하라. 기회가 있을 때 타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 2:19-21)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 5:3)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 17: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3-24)

P 열매

318 열매를 살피라

319 나누기 위한 열매

320 때를 따라 열매를

321 성령의 열매를 나누라 파종과 추수

322 세가지 소리

323 무엇을 뿌리는가

324 추구할 것

325 추수 할 시기

326 겨자씨를 키우라

1) 열매

318 열매를 살피라

누가 거룩한 산에 거하며, 누가 주의 성막에서 살아가는가? 누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리고 누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가? 그들의 열매를 살피라고 말씀하셨다. 그 열매를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고 하셨다. 주변을 둘러보아라, 어떤 열매를 볼 수 있는가? 만약 열매를 보았다면, 순종을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들이다. 지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의 연단을 순종으로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 열매가 맺히도록 배우고, 순종하며, 시련을 극복하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15:1-2)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마 13: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엡 5:9)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 12:11)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5)

319 나누기 위한 열매

범사에 때가 있다

열매 없는 무성한 잎은 무용지물이다. 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며, 열매는 나누기 위한 것이다. 열매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다. 복된 심령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개인의 영혼에 만족을 준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이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를 분별해야 한다. 범사에는 때가 있다. 축복의 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열린다, 경외함이 올바른 길을 보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는 순종을 가져다 주며,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앞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 21:18-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딤후 2:2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7)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 14:31)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320 때를 따라 열매를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주의 깊게 자세히 듣고 말씀대로 살며, 의의 길로 행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는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완고하고, 거만하고,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하여 살아간다. 자신이나 친구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르는 것은 죄인의 길이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때에 맞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파종과 수확의 관계를 이해하고, 의심으로 심은 것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적게 심고 많이 수확하기를 기대하는지, 나의 밭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나의 겨자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자라난 씨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내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내 삶을 형성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고후 9: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7-19)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잠 11:18)

321 성령의 열매를 나누라

과일나무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힘으로 튼튼한 나무를 만들어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나누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면, 세상의 열매와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젖소가 이슬을 마셔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는 것처럼, 독사가 이슬을 마시면 독을 만들듯이, 내가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나의 열매가 결정된다.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좋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누어라. 성령이 주신 열매를 순종하여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내 안에서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3-27)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피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흥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잠 31:13-21)

2) 파종과 추수

322 세가지 소리

누가 나의 일을 원하는지 분별하라. 성령께서 원하는가, 사람이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가? 세가지 목소리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창조주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나의 소리,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4-6)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 1:1-2)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Mt 4:3-8)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요일 2:16)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Pr 16:25)

323 무엇을 뿌리는가

우리는 씨를 뿌린대로 이 땅에서도 거두고, 영원한 상급으로도 거둘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의 법칙이다. 나는 무엇을, 어디에, 왜 뿌리는가? 말씀대로 파종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두실 것이다. 그것이 정하신 법이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파종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믿음은 내가 믿고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사 32:20)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찌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찌어다 (잠 3:1-7)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 28:1-6)

324 추구할 것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지를 가르쳐라. 양 보다는 질에 관심을 두어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새벽 이슬의 제자이다. 세상은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내가 왜 일하는지를 분별하라. 동정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 4:2)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 11:6)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 10:12-1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21)

325 추수 할 시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중에서 제자들을 찾으신다. 기도로 제자들을 양육하며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라. 두려워 말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나의 사고, 고집, 전통, 무지함, 경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추수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하라.

때를 분별하라. 지금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 추수할 때이다. 교회가 공의보다는 능력을, 하나님보다는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할 것이라고 한 것을 생각하라.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뉘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5)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12-14)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6)

326 겨자씨를 키우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성장하는 꿈을 설계하고, 먼저 나의 계획이 나의 비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라. 주 안에서 그 겨자씨를 키우라. 성장하는 모든 단계를 기도로 축복하라. 사도 베드로가 불가능한 곳에서 어떻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축복의 자리 안에 머물며, 예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 나의 팀들을 축복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 7:7)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 21:3-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 5:16)

Q 축복

- 327 축복을 부르는 충실한 마음
- 328 무엇이 축복과 저주를 가져오는가?
- 329 균형 잡힌 “정상적”인 삶
- 330 균형 잡힌 삶의 능력
- 331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를 만나라
- 332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 333 맛있는 과일들은 더위와 추위를 통해
- 334 무엇이 축복을 여는가?
- 335 축복받은 자의 성품
- 336 듣고, 믿고, 축복을 누리는 삶
- 337 이러한 축복을 얻으라
- 338 축복의 자리를 지키라
- 339 넘치는 축복을 나누라
- 340 나누는 축복
- 341 위로부터 온다
- 342 “새벽이슬”들의 풍성한 삶을 누리라
- 343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 344 받고, 관리하고 누리라
- 345 이 땅에서의 상급
- 346 천년 왕국의 상급
- 347 하늘에 있는 상급
- 348 보호와 공급의 통로
- 349 한 영혼이 회개할 때

1) 정상적인 축복

327 축복을 부르는 충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은 작은 양 떼를 성실하게 돌본 그의 충실함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 맞는 옷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일이다. 우리는 주어진 일 가운데 작은 것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정상적인' 것을 기억하라.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산 소망을 따르며 순종할 때,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도 기다리고 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일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순종을 필요로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 1:3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일 3:21-22)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3:3-4)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6-17)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 3:18)

328 무엇이 축복과 저주를 가져오는가?

성경에는 두 종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세운 교회, 나라, 사업, 집, 가족 등에 관한 것이며, 이들에게는 축복이 따른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것이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저주도 기록되어 있다. 십계명을 무시하고 행하는 일들은 멸망, 죽음, 장애, 가족의 분열을 가져온다. 또한 교회를 소홀히 하고 해를 끼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이들에게는 멸망, 분열, 축복의 상실이 따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과 교회를 세우는 이들에게는 솔로몬과 다윗 왕처럼 축복이 따를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하고 진실한 예배와 희생을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으시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 30:14-15)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앉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슥 3: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사 45:7)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애가 3:38)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 14:24)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329 균형 잡힌 “정상적”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다. 이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의미하며, 축복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균형 잡힌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 마음의 평화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찾아온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일의 축복은 오늘 내가 순종할 때 열리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을 지키자.

불균형한 삶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쳐 죄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이는 탐욕에 이끌려 저주를 받는 것과 같다. 방치된 빈집이 파괴되고, 관리되지 않은 파이프가 녹슬어 파열되듯, 삶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비정상적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면 마음이 갈라져 온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다.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온 마음으로 사랑받을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시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14:23)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330 균형 잡힌 삶의 능력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 잡힌 삶에는 큰 힘이 있다.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오해하며,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는 방향과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교회나 선교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행위와 같다. 성령을 따라 예복처럼 행하자.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했지만, 그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큰 대가를 치렀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6-9)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 3:18)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딤후 2: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5-16)

331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를 만나라

정상적인' 삶이란, 말씀에서 주어지는 교훈을 너무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절제를 갖고 올바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는 오직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게으르거나 과로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에 따라 '정상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따라 '정상적'인 영적 훈련을 실천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6-11)

332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자. 오늘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 계신 성령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1) 말씀을 만나라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5)

2) 성령을 만나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 4:15)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6:56)

3) 하나님의 뜻을 만나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 2:12-13)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0)

2) 축복의 비밀

333 맛있는 과일들은 더위와 추위를 통해

무덥고 추운 날씨는 힘들지만, 계절마다 익어가는 맛있는 과일들은 이런 더위와 추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열매도 고난을 통해서 맺어진다. 어렵더라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워하지 말고 육체적 욕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목표는 달성할 때도 자랑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

열매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린다. 만나는 축복의 음식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드시고 내려주시는 축복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셨는지를 이해하라. 그것을 찾았다는 것은 축복의 비밀을 찾았다는 의미이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6-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6-17)

334 무엇이 축복을 여는가?

가르치고 기도할 때 설득이나 이해보다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쏟으라.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십일조를 드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라헬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 요셉을 주셨고, 요셉을 통해 70 인의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하셨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 1:2)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사 5:4)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사 48:18)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 49:16)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엡 5:10)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335 축복받은 자의 성품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렸으며, 그 나라를 끝까지 충실하게 섬겼다. 그는 그 나라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고, 애굽인들이 모세를 우상처럼 숭배하지 않도록 그의 죽은 몸을 옮기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몸을 헤치거나 학대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계절마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명하는 간증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 됨과 회개가 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런 징조가 있는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와 기쁨 부으심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약 1:3)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약 1:14)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약 4:7-8)

336 듣고, 믿고, 축복을 누리는 삶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산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신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을 느낄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축복된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주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삶을 누리고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삶이다.

귀와 눈이 열려서 잘 듣고 보는 사람은 꿈, 일어나는 사건, 자연, 어려운 일,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축복의 길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구름을 관통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야 한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0-23)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 57:2)

337 이러한 축복을 얻으라

1) 영생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축복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39)

2) 사탄의 유혹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택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시 57:2)

3) 기도의 응답의 축복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 9:7)

4) 축복의 길로 걷는 축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1)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와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 92: 14-15)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10:9)

5) 숨겨진 비밀을 아는 축복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엡 1: 9)

6)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랑으로 사는 축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7)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 14:14)

8)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 37:4)

338 축복의 자리를 지키라

균형을 잃을 때, 나는 저주의 길에 있는지 아니면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분별하기 어렵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나 자신이 원수의 길을 따르고 있거나 원수의 나라 건설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영적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주가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고 따르도록 하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새벽이슬의 축복받은 삶을 지키라. 몸과 마음과 삶을 더럽히지 말도록 하자. 새벽이슬이 밤과 아침 사이에 맺히는 것처럼 핍박이나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새벽이슬의 축복을 이루자. 새벽이슬은 장차 올 영광의 모습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수 1:7)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일 4:18)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 1:2-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6)

339 넘치는 축복을 나누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가? 약속한 땅은 시나이반도보다 훨씬 크다. 토지 이용의 원칙은 그것을 낭비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경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더 큰 집과 더 많은 땅을 원한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소유한 후에는 심판이 뒤따를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나누지 않은 축복은 심판 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30 배, 60 배, 100 배의 수확을 내지 못하는 땅도 심판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나누지 않고 낭비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의 소유한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나누는 것은 축복을 부르는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19-21)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40)

340 나누는 축복

내가 속한 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일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축복은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이니,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잊지 말라. 하늘과 땅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정상적인' 축복이란 무엇인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나누어야 한다. 두 벌의 옷이 있는데 한 벌만 사용한다면, 나머지 하나를 나누어라.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생긴다.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흔들리고, 영혼은 사망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이들은 심판이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재물을 쌓는다.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일시적인 안도감이나 잘못된 시작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는가? 인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 그렇게 한다면,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보물을 찾듯이 말씀을 찾아라.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자세히 인도할 것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축복의 길을 찾아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눅 12:42)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 3:7-10)

3) 풍성한 삶

341 위로부터 온다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온다.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시작된다. 천국의 삶은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말씀의 문을 열어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선물이다.

내면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을 통해 참된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라. 더 깊고 높은 사랑으로 주를 경배하며, 말씀을 통해 타인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오늘, 그 사랑의 씨앗을 키워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지 말며, 약속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하나님을 따르고 타인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라. 그것은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다. 사랑의 선물로 오는 그의 임재는 위로부터 오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 145:1-2)

342 “새벽이슬”들의 풍성한 삶을 누리라

잠언 3 장에는 14 가지 교훈이 있다. 이 교훈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새벽이슬’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얻고 누리는데 대한 교훈을 기억하라.

- 1) 주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라.
- 2) 인자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두라.
- 3)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되, 자신의 명철에 의존하지 말라.
- 4)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 5) 자신만의 지혜를 믿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 6) 처음 수확한 열매로 여호와를 기리라.
- 7)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무시하지 말라.
- 8)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 9) 지혜와 명철을 잃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간어라.
- 10) 필요한 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베풀라.
- 11) 이웃이 도움을 청하면 내일 가서 돕겠다고 하지 말라.
- 12)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 13) 이웃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다투지 말라.
- 14) 탐욕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

343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이에게도 전달되도록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느낀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본받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이 깨달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위로와 빛을 준다. 율법이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 7:24)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1-13)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344 받고, 관리하고 누리라

믿음은 모든 축복의 통로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 하나님의 말씀안에 모든 모든 계획을 세우라.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끝까지 달린다는 것이다. 믿음의 경주에는 은퇴가 없다.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계속 달린다.

승리는 누구에게서 오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승리와 성공을 분별하고, 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며,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누리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8-10)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굶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 37:22-26)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4) 상급

345 이 땅에서의 상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요. 오늘, 천국을 살라.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의를 굳게 잡고, 네게 주신 말씀을 지켜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악을 미워하고, 주 앞에서 온전하라. 덕을 세우고, 산 제사의 삶을 살고, 주를 믿고,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바른길로 인도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며, 어려울 때 응답하시며, 보호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승리를 주시며, 의에 따라 상을 주시며, 머리가 되게 하시며, 범사에 복을 주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6-7)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롬 8:32)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 37:23)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8)

346 천년 왕국의 상급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누리도록 계획 하신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열매이며 상급의 시간이다. 천년의 왕국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혼돈치 말라.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에 쌓이는 상급은 교회 건물을 많이 짓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단 12:13)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찐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전 4:1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 20:4-10)

347 하늘에 있는 상급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맺으신 열매를 살펴보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라.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상급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신경 쓰지 말라.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 마지막에 받을 상급에 대해 생각하라. 우리가 쌓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5)

너를 낳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8:3-4)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으로라 (요 15:16-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15:9-10)

348 보호와 공급의 통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축복이 이 땅으로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실 때, 내 기도의 잔이 넘칠 때, 하늘의 축복문이 열린다. 약속하신 말씀안에 확실한 믿음과 기도의 잔이 넘칠 때가 응답이 오는 시간이다.

죄의 잔이 넘칠 때 저주와 심판이 온다. (예: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이집트, 바벨로니아, 앗시리아, 이스라엘과 유다, 마귀의 기업들) 축복과 저주는 지금 이 땅에도 있고, 앞으로 마지막 심판할 때도 있을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게 귀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 141:1-2)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단 9:4)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6-8)

349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행위의 열매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친다. ‘주여, 주여’하면서 간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없는 입술의 간구일 뿐이다.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광야의 요한처럼 선포하라. 물질적인 이득이나 유익을 추구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7)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34-35)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8-13)

R 경고

- 350 무엇이 죄인가?
- 351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
- 352 심판의 잔이 찰 때 경고하신다
- 353 저주를 초청하지 말라
- 354 저주가 흐르는 강줄기
- 355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 356 어두운 곳으로부터 나오라
- 358 바벨탑은 멸망을 부른다
- 359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 360 부패의 악순환
- 361 누구도 피할 수 없다
- 362 심판의 대상
- 363 심판의 기준
- 364 이 땅을 떠날 때 받는 심판
- 365 천국은 심판이 없는 곳
- 366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
- 367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 368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 369 단순하게 생각하고 축복을 초청하라
- 370 이루시는 주를 만나자
- 371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 372 무례하지 말라
- 373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라
- 374 판단하지 말라
- 375 불평하지 말라
- 376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 377 예, 아니오로 만으로 대답
- 378 세상의 지식과 성령
- 379 죄악의 길에서 나오라
- 380 프로그램으로 성령의 능력을 대체한다
- 381 열정이 말씀에 앞서갈 때 이단을 만든다
- 382 천국 건설자가 누구인가?
- 383 누구의 소리를 따르는가,
- 384 하늘의 떡을 먹고도 요단강을 못 건넌자
- 385 형벌이자 회개의 기회이다
- 386 헛되이 바친 것, 멸망케 하는 것
- 387 복의 통로를 막지 말라
- 388 선교와 사업을 분명히 구분하라
- 389 무엇이 축복을 막는가?
- 390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라
- 391 번치 않는 것으로 세워라
- 392 어느 잔을 채우는가?
- 393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보는 눈
- 394 번치 않고 약속을 지키심
- 395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 396 이런 것들을 조심
- 397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라.
- 398 세대가 악하다
- 399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 400 세대와 나라를 보는 눈
- 401 악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 402 이단의 교리
- 403 삶꾼 목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하기

1) 심판의 경고

350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것과 같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기도 연결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고 불안과 공포를 초래한다. 기쁨과 감사 대신 비판적인 정신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되며, 성령이 금지하는 것을 따르고 성령을 슬프게 하여, 축복의 길을 막고 죄를 쌓아 적에게 힘을 주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의 길을 걷는 것이며 원수와 손을 잡는 것과 같다. 말씀을 떠나 행한 것의 결과를 생각하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내 백성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 2:13)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벧전 3:10)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벧전 4:3)

351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며, 죄의 권세 아래로 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은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일의 결과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회개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잘 풀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결과가 늦게 나타나더라도, 세상과 타협치 않으며,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실패하지 않고 승리 할 것이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열매를 주시는 간증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롬 14:17-19)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롬 14:22-23)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금화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 (창 12:4)

352 심판의 잔이 찰 때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도록 경고하신다. 심판의 잔이 넘쳐서 경고할 때, 회개하면 심판을 미루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찾아온다.

선교사들은 로마서 1 장에 기록된 인간의 악과 부패, 타락함을 깊이 알아야 한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별하며, 로마서 1 장과 신명기 28 장의 축복과 저주를 비교하며 생각해야 한다. 사탄은 심판의 말씀이 오도록 유혹하고, 성령은 축복의 말씀이 오도록 인도한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신 28:1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롬 1:24)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1:2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롬 9:18)

353 저주를 초청하지 말라

믿음을 떠나게 하고 유혹과 저주를 부르는 것

- 1) 사람을 믿는 것
- 2) 친족들을 믿는 것
- 3)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 4)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 5)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
- 6) 주를 떠나 내 방법으로 하는 것
- 7) 자신을 위해서 저축 창고를 짓는 것
- 8)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 9) 타인에게 무정한 마음
- 10) 사람의 칭찬을 찾는 거만한 마음
- 11) 불로 살라 없어질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탐심은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4:12)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 16:18)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 10:24)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 30:12)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막 4:19)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

354 저주가 흐르는 강줄기

가계에 흐르는 악과 저주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악의 골을 따라 흐른다. 이 물에 젖은 죄인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 죄를 쌓으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자발적으로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이것은 축복의 통로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의 줄기를 따라 이루어진다.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칭의를 받을 수 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깊이 사유해야 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5-1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출 34:7)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겔 33:18-1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롬 8:9-10)

355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다. 다윗은 그가 받은 기름 부음으로 인해 도망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 때문에 여러가지 시련과 감옥 생활을 겪었다. 예레미야 역시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머거리와 같다. 한 귀머거리가 다른 귀머거리를 인도하면 둘 다 함께 빠진다. 일시적인 성공보다는 영원한 보상을 추구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누구도 다른 이를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6-48)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 5:12)

356 어두운 곳으로부터 나오라

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 재물, 명예를 잃게 된다면, 아벨처럼 진심어린 예배로 하나님께 다가가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나의 잘못된 태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깨우쳐야 한다. 어두운 생각 속에서는 아무런 성취가 불가능하다. 축복이 죄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어떤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흐리게 하는지 깊이 고찰해야 한다. 어떤 유혹이 나를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지 알아내고, 하나님의 의도와 비전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내면의 어둠을 극복해야 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 4:3-7)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사 59:2-3)

357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기계화

창조의 질서는 순수하고, 신선하며, 풍부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기계화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질서를 위협한다. 이 기계 중심의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그 시스템의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무기나 핵무기, 술과 같이 세상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창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 1:31)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 3:11)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4-15)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스 14:12)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오리로다 (시 11:4-7)

358 바벨탑은 멸망을 부른다

진리라면, 항상 진리이어야 하고, 사실이라면 항상 사실이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영원할 것이다. 모든 일을 반석 위에 세우도록 조율하라.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나의 경험과 지식, 계획을 믿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시간 차이일 뿐, 바벨탑 사건처럼 후회와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파멸은 내가 믿었던 것이나 믿었던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24-27)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마 21:44)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써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 2:22)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0)

2) 심판이 오고 있다

359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죄를 짓게 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만들고 기도와 축복의 흐름을 막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이 아닌 것에 속지 말고, 속이지도 말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증오보다 더 나쁜 죄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심판이나 정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 12:36-37)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찌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6-12)

360 부패의 악순환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죄는 더 많은 부패를 초래해 악한 세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부패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죄에 빠져들고 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렘 5:2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신 30:15)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원두밭의 상직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사 1:5-9)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롬 1:28-31)

361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기록된 대로, 심판은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곳에서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나무 옆에는 도끼가 놓여 있는데, 이는 주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 나무를 베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반면,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이미 놓여 있는 도끼에 의해 베어져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놓인 도끼가 나에게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 11:3-5)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눅 3: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슥 1:2-6)

362 심판의 대상

몸을 더럽히거나 정욕에 빠지거나 탐욕으로 모은 것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행위록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라. 어떤 자격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가는지 또는 휴거 되는지 알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른다면 원수에게 속은 것이다. 천국의 일은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가진 돈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일은 돈이 이룬 것이지 믿음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이다. 그 성공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 말씀에 있는 지시와 약속으로 계획을 세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룰 힘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라. 이들이 천국의 건설자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갈 5:25)

363 심판의 기준

심판에는 '여섯 가지 기준'이 있다.

- 1) 기록된 말씀 대로
- 2) 나의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 3) 나의 판단 기준에 따라
- 4) 내가 말한 대로
- 5)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 6)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 대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2-13)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 7:2)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롬 2:6)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롬 2: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3:13-15)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 3:1-2)

364 이 땅을 떠날 때 받는 심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평가될 것이다. 성경에는 심판의 규칙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며, '예' 혹은 '아니오'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는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고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모은 헌금도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계 19:6-8)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20:12-15)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 12:7)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

365 천국은 심판이 없는 곳

천국은 심판이 없는 평화롭고 기쁜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올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언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방법으로 만나라.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하라. 우리가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나오는 자에게 상이 주어질 것을 믿고 따르라. 성령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3-16)

3) 영원한 가치 위에 세우라

366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하셨다. 그 설계의 핵심은 영원한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가 왜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마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무너질 경우, 불평하기보다 깊이 회개해야 한다. 일시적인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오직 유혹일 뿐이다.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과 영광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아래 있게 된다. 이것은 영원히 파멸되는 원수의 지배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말씀의 기초와 축복 위에 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 2:1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뻗힐 것이니 (마 15:13)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요 15:2)

367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나의 경험, 지식, 생각, 그리고 기억하는 말씀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 건설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용해서 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좌우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초를 세울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튼튼한 기초 없이 세운 집은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질 것이다. 무너져 가는 집을 고치기보다는 말씀 위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 21:4)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잠 20:18)

368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내 자신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은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 때문인가? 주어진 일에 대해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임을 인정하자. 불평은 모든 경우에 심판을 부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자. 성공할 때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고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4-5)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2)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 2:13-15)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369 단순히 생각하고 축복을 초청하라

마음이 급하고 복잡할 때 마음이 급하고 복잡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내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세상 사람처럼 내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영을 위축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비판적이고 파괴적이거나, 해로운 말은 하지 말자.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비판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은 지양하자. 대신에,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밝고 따뜻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함을 표현하자. 그리고 항상 기억하자. 우리의 삶은 복잡해질수록 단순하고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답이 있다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단순함 (심플리시티)임을 기억하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 7:1-2)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 57:18-21)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약 3:6)

370 이루시는 주를 만나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정상적"인 방법을 따라야 한다. 특히 영적 훈련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성길 때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눈과 눈으로 만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를 초청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기시고 축복하시며, 우리가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멸하는 것이 아닌,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행 8:1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 3:14)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3-15)

4) 종의 태도

371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지라. 온전한 알곡처럼 되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낮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사랑과 나눔으로 하라. 몸과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고.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선물이다. 우리의 뿌리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 비밀은 ‘은혜의 시대’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진리’를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1-7)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전 1:30)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6-7)

372 무례하지 말라

사랑은 동물에게도 무례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음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인식하라. 논쟁이나 불평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며, 교만하지 말라.누군가를 만날 때 그를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며, 다음에 그를 만날 때는 주 앞에서 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라. 마태복음 5 장을 따라 행하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룸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잠 21:24)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7-8)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 5:2)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 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전 5: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 1:22)

373 말씀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온 비밀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의 영광과 소망이 드러난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두려움 없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이슬'처럼 순수하고 청결하기를 원하신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약 1:17)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9-1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8)

374 판단하지 말라

말씀을 떠난 모든 의견과 주장은 흔들리는 치아와 같이 힘이 없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속한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는 사랑과 용서뿐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다져 나가야 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악령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사도행전의 길을 계속해야 한다.

허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허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약 3:6)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약 3:11-12)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약 3:16-17)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약 5:8-9)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럴다 하는 것은 그럴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약 5:12)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약 5:14)

375 불평하지 말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2 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으나, 약속된 가나안 땅을 얻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그 기회를 잃고 38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치유를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연못가에서 38 년을 기다리던 중풍 환자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평하지 말고, 대가를 치를 때가 올 것임을 인지하며, 다툼과 자랑을 피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팔복을 기억하며 지키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요 5:14)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지라도 없으리로다 (시 37:7-10)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알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약 4:6-8)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6-48)

376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멈출 때 기뻐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직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시련과 고난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 43:1-2)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딤후 2:3-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 2:21)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1-2)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5)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15:18-19)

377 예, 아니오로 만으로 대답

심판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한다. 그때는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기회는 없다. 땅에서는 변명할 수 있을지라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행위록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 행위록을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준비가 돼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뜻(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삶을 기록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행위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이를 가르쳐야 한다. 피하거나 침묵하는 자에게는 성공과 승리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성공은 소동과 고모라처럼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신 의무를 말씀대로 충실히 이행하며, 성공과 승리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20:11-1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6) 샅꾼 목자, 몽학선생들

378 세상의 지식과 성령

세상은 우리에게 지식과 경험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만약 성령의 가르침을 듣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깨달음 없이 행동하게 되고, 축복의 길을 찾지 못하며, 능력이 결핍된 지식만을 바탕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오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2-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마 15:13-14)

379 죄악의 길에서 나오라

만약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거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한다면, 이는 좁은 생각과 부도덕한 태도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을 찢으며 기도하라

성적인 죄에 빠진 선교사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체적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헌금까지 낭비하고 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드러낼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찌니라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1-17)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380 프로그램으로 성령의 능력을 대체한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될 것이며, 이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것은 불에 타서 재가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샅꾼의 길을 걷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샅꾼이 될 가능성을 드러낸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 16:23-27)

381 열정이 말씀에 앞서갈 때 이단을 만든다

정상적인 규범을 초월한 종교적 열심이 이단을 만든다. 열정이 말씀보다 앞서갈 때 그것이 이단을 만든다. 말씀 없이 음성을 듣거나 설교하면 무지한 자가 되어 이단에 빠진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자들은 심판 날에 영원히 원편에 서게 될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마 7:21-25)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 4:3-5)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꺾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되 내가 저를 꺾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열상 22:19-21a)

382 천국 건설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천국을 건설하는가?

누가 천국에 거하는가?

천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천국을 다스리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최후의 불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나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인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3:6-7)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4-15)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 15:1-5)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6-17)

383 누구의 소리를 따르는가,

내 소리, 사람들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성령의 소리: 나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가? 나는 예배 중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가?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애통하는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애통함이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온전한 회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열쇠이다. (회개하고, 믿고,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 6:53-58)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금화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384 하늘의 떡을 먹고도 요단강을 못 건너자

하늘의 떡을 먹고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길을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천국의 길을 걷는다. 욕심을 따르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며, 다가올 진노의 잔을 채운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부끄러운 정욕에 빠져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적인 타락은 창조의 자연 질서를 교란시키며, 아름다운 사랑을 추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변질시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타락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불의로 가득 차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내 생각, 지식,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단정 짓지 말라. 교만하여 시간이 되면 파괴될 바벨탑을 쌓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찾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맛보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렘 9:24)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찌니 혹 흘러 떠나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히 2:1-4)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롬 1:26-27)

6) 깨닫는 지혜가 있는가

385 형벌이자 회개의 기회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형벌이자 회개의 기회이다. 그 영혼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올 때, 열매가 있다. 잃어버린 영혼에 전한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신다. 애통해하는 마음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진실된 사랑하는 마음은 달한 마음을 연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3-5)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4-15)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 10:14-16)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386 헛되이 바친 것, 멸망케 하는 것

모든 것을 바쳤더라도, 그것이 나의 지식, 습관, 전통적인 열정, 그리고 나의 양심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면, 나의 지식은 나를 멸망시킬 것이고, 종교적 형식주의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헛된 노력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 1:10)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고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 3:16-18)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눅 16:15)

387 복의 통로를 막지 말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불평과 불만, 쓴 뿌리가 하루를 채우지 않도록 하라. 이것들은 축복의 흐름을 막고 심판의 잔을 채우며, 원수들이 우리에게 심판을 요구하도록 만든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경고하신다.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연기하시고, 죄가 깊어질 때마다 다시 경고하신다. 죄인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심판의 잔이 넘쳐흐를 때, 심판이 온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 29:29)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 29:3-4)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 6:33-34)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의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하였음이라 (암 2:4)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암 2:6)

388 선교와 사업을 분명히 구분하라

사업과 선교를 명확히 구분하라. 사업과 선교가 분명히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잡으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르라. 나는 말씀을 듣는 자인가? 행하는 자인가? 나의 일을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라. 튼튼하지 않은 기초 위에 세운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주의 뜻에 집중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잘못된 것 위에 세워진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 나가라.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칙을 왜곡하거나, 타협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정상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버리라. 정상적인 투자는 축복이나, 투기는 잘못된 것이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사 62:10)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꾀술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 네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3-27)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3-14)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 10:22)

389 무엇이 축복을 막는가?

무엇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길을 막고 있는지 체크하라. 아침하는 말이나, 저주를 부르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라. 사탄은 우리의 말을 듣고 생각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그러므로 생각의 문을 지켜야 한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 주의 건강한 자녀들에게는 즐거움과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는지, 무엇이 기쁘지 않게 만들고 막는지, 무엇이 축복을 막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지상 명령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것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전 5:19-22)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 16:25-26)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 59:2)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약 3:10)

390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해야 한다.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믿음에 앞서는 것,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는 것, 마음을 분열시키고 동요시키는 것, 염려와 근심, 의심, 탐욕, 정욕, 시기, 음모, 낙심, 모함, 분노, 질병, 과로 등은 모두 회개해야 할 대상이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주를 경외해야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인 음모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나 교회 안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계획하거나 뒤에서 조정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적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 5:9)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 5:17)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0-3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5)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 5:19-22)

391 변치 않는 것으로 세워라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 안에, 말씀 위에, 말씀을 통해 세워진 것은 영원하다. 심판의 불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세워야 한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은 마음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데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데로 판단치 아니하며 (사 11:3)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요일 2:6)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마 5: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 6:33-34)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 1:8)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13-14)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갈 5:16)

392 어느 잔을 채우는가?

기도의 잔은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구로도 채워진다. 이 잔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말씀대로 회개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고, 계획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나의 선행을 주께서 받아주실 때 축복이 온다.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심판의 잔이 넘친다. 심판은 현세와 내세에 명확히 존재하며, 천사들과 우상들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심판의 시기를 알고 계신다. 삶과 죽음, 흥망성쇠는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개인, 가족, 교회, 기업, 나라가 회개하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를 것이다. 죄의 잔이 차면 심판과 저주가 따른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 이 땅의 심판자이시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녕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 8:11-13)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롬 1:27-32)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롬 2:1-8)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계 22:11-15)

393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라는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해하게 된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의, 사랑, 능력, 약속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향해 있으며, 오늘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을 불러오는 원수의 권세 아래에 세워지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내일을 의심하며 오늘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계획하고 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힘을 구하라.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 12:51)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출 19:24a)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신 28:1-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 15:13)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벧전 5:6-8)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 6:33-34)

7) 어려운 시기가 온다

394 번치 않고 약속을 지키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변하실 수도 없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 a)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사는 세대가 가장 복된 세대이다.
- b)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깨달으라.
- c)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
- d) 적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세상의 문제 해결사로 인정받는 사람을 주목하라.
- e)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의 재림을 선포할 것이며,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희석시킬 것이다.

재림 전에 많은 환난과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전 4:17)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후 1:20)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7)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사 40: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395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씨를 뿌리라,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거둘 것이다. 어떤 것이든 선한 것을 뿌리라.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무 많이 뿌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뿌리라. (영혼을 추수, 복음 나눔, 사랑 나눔, 가진 것 나눔, 돕기)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사 32:20)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막 12:29-31)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35-40)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 6:3-4)

396 이런 것들을 조심

정직과 겸손으로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주님을 초청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한다. 죄악이 이기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마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도록 유혹한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말해야 한다. 매춘, 거짓말, 부당한 사업, 도적질, 부패, 그리고 성도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한 죄악이다. 그들은 모두 불 못으로 향해 가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2)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 10:40)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2-3)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9-21)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 21:8)

397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라.

- 1)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세대는 가장 복된 세대이다.
- 2)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이해하라.
- 3) 제 3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해 들을 때, 때가 가까움을 알라.
- 4) 적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며 세상의 문제 해결사라고 알려진 자들을 경계하라.
- 5)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예수의 재림을 선포할 것이다. 왜 그런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헤이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기 위함이다.
- 6) 예수님 재림 전에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1-12)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찐자) (마 24:15)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 24:19-20)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4)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37)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

398 세대가 악하다

사탄은 미디어, 컴퓨터,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혹한다. 그러므로 혼돈된 정보를 휘말리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컴퓨터에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따른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생사화복을 찾는 답은 기도에 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바꾸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의 역사는 “잠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의 일들은 유한하며, 불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며, 영원한 가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 6:62-63)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전 4:16-17)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전 5:3)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후 2:7;11-12)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전 5:16-17)

399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는 매우 부패한 세대에 살고 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타인에게 변화와 요구를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것을 실천하라.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말썽에 타협하고 불순종했다. 그 결과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말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말썽을 순종했고, 지금도 거듭난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승리하고 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새벽이슬들에게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받으시는 기도, 찬양,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성령을 따르고 은사를 받아 능력으로 함께하는 복음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시간을 아껴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궤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5)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찐저 (사 5:20)

400 세대와 나라를 보는 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애굽을 번영하게 하셨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계시며, 어느 나라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인식하는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여호와 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높여주시며, 믿음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 세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땅을 나눌 때 많은 일이 있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어떠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샅쿰 목자에게는 빵 한 조각도 주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니라
(잠 8:17-21)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약 4:8)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6-30)

401 악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

선교사(새벽이슬)들은 로마서 1 장에서 나타난 죄가 생산하는 타락의 진행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점점 더 악해져 가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사회의 변화, 문화, 사역자의 태도, 그리고 교회의 현실은 모두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은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로마서 1 장은 신명기 28 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신명기 28 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경우 축복을,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1 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빠짐으로써 이미 저주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명기 28 장에서 언급된 저주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행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한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의 패턴은 자신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 a) 육신의 정욕
- b) 안목의 정욕
- c) 이생의 자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롬 1:28-32)

8) 이단과 거짓 선지자

402 이단의 교리

말씀 없이 영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이단의 교리를 세우고 따를 것이다. 샅꾼 목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말씀의 지식을 쌓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진정한 목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라. 기도와 말씀 중에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한 성령의 소리를 들은 것을 증명할 것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약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2-23)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4:1-6)

403 샅꾼 목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하기

샅꾼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추구하는 것

1. 돈
2. 명예
3. 권위
4. 개인적 이익
5. 육체적 만족

샅꾼 목자와 거짓 선지자가 주장하는 특징들:

1.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려 한다.
2. 개인의 부유함을 주장하며 그것을 정당화한다.
3.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
4. 부도덕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는다.
5.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6. 성경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우선으로 여긴다.
7. 오직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다.
8. 교만하고 오만하다.
9. 탐욕이 있다.

S 사탄, 적

404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405 사탄은 매개체를 사용한다

406 사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유도한다

407 사탄은 마음을 흔들어 공격한다

408 사탄은 서두르게 만든다

409 사탄의 고침은 재발하게 한다

410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

411 사탄을 이기라 (8 codes)

412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413 노력의 결과가 무엇일까?

414 사탄의 음성을 따르지 말라

415 덮을 주의하라

416 사탄의 계획

417 적의 계락을 알라

418 사탄의 계락 (A)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

419 사탄의 계락 (B) 죄를 정당화, 고통으로

420 쫓겨난 영들이 가는 곳

1) 적을 알라

404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은 이 세상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4000 년 이상 증거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을 두려워한다. 이 지식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사탄이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한다. 사탄은 의심과 불신으로 문이 열린 사람들의 마음에 붙어서 숨어 들어온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사탄은 내가 마음을 열고 그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안의 말씀을 훔치거나 속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사탄은 의심, 오해, 무감각 등으로 내 안의 말씀을 훔치거나 속이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임을 기억하라. 말씀의 존재만이 사탄의 능력과 영향력을 막는다. 말씀을 믿고 그 위에 서라.

내 안에 말씀을 지키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나의 믿음과 합쳐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타협하지 않는 새벽이슬이 되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 13:2)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3)

405 사탄은 매개체를 사용한다

사탄은 가롯 유다의 귀에 속삭여 유다의 마음을 의심하게 했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섬겼지만 믿지 않았고, 그의 본심은 깨끗하지 않았다. 사탄은 불신과 의심을 통해 유다의 마음에 바이러스처럼 침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회개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피로 얼룩진 것을 지울 수 있는가? 오직 말씀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평안함과 성공이 무엇인지,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 13:2)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행 5:3)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7-19)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행 2:37-39)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406 사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유도한다

- 1)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 2)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 3)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한다.
- 4) 거짓말을 하게 하고 진실을 숨기게 한다.
- 5)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다.
- 6) 나쁜 계획을 꾸미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게 한다.
- 7) 악한 길로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다.
- 8)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참된 증언을 숨기게 한다.
- 9)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
- 10) 정성이 담기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헌물을 하게 한다.
- 11)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
- 12) 믿음이 없는 탄식과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한다.
- 13)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게 한다.
- 14)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 15)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한다.
- 16)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게 한다.
- 17)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시 81:12)

407 사탄은 마음을 흔들어 공격한다

믿음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며, 소망의 물로 더욱 푸르고 무성하게 번성한다. 그러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손길이다. 그의 방해는 과거에 쌓아올린 것들을 파괴하고, 균열을 일으켜 우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한다. 사탄은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만약 전쟁에서 병사가 대장의 마음을 흔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떨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음료를 나누며, 교제하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가지에서 싹트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6-21)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0-12)

408 사탄은 서두르게 만든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사탄은 우리를 성급하게 만들고, 다급한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나는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욕심은 불안을 야기시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며, 죄인의 길로 이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경험이나 사람의 조언보다는, 말씀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차이 일뿐, 결국 무너질 것이다. 물 위에 큰 도시를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 위에 하나씩 세워 나가야 한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모든 것을 말씀 위에 하나씩 세워 나가라. 시편 1 편에서 답을 찾아라. 어떤 열매든지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열심히 한 모든 것이 시간 낭비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약 1:14-17)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 1)

409 사탄의 고침은 재발하게 한다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병은 재발한다. 마찬가지로,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다시 찾아온다. 내가 받은 치유는 하나님과 사탄 중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사탄은 항상 성도들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그들이 혼자 일하도록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실제적인 영적 존재이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에게 어떤 문이 열려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회개와 말씀을 통해 이겨야 한다. 회개하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의미한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 4:8)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 3:18-21)

2)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가?

410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은 손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경험, 기술,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기도로 사탄의 계락을 막고, 승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양심에 사탄이 일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즉각 회개하고,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깨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성령께 맡기고,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예수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다. 믿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 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18-19)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 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6-10)

411 사탄을 이기라 (8 codes)

1. 말씀과 믿음으로 이긴다: 세상의 명예가 아닌, 말씀과 여호와와 능력으로 승리하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 11:6)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 4:2)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한 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일 4:15-1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 4:4)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 4:7)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 4:10)

2. 계획, 지식, 경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 4:12-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 5:16-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찌니라 (갈 5:24-26)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 12:8)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 12:18-20)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륵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5-39)

3. 기도로 사탄의 계락을 막고, 끝까지 대적함으로 이긴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약
4:6-8)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0-31)

4. 하나님의 전신 감주를 입고 이긴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감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감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엡 6:10-
18)

5.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임을 알고, 기도를 요청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엡 6:18-19)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골 4:3-4)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 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단 2:16-19)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단 9:3-4)

6.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이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엡 4:22-27)

7.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원수를 대적함으로 이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벧전 5:7-10)

8.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이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험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끓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 37:4-10)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거두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선포하여라. 사탄은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을 기뻐하니 조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한 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곧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경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며 읽고 믿고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412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팀을 분열하게 함	팀을 하나 되게 함
미움으로 행함	사랑으로 행함
타인에게 무례함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함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좇으며 성령을 거스림	영적인 가치를 알고 신실하게 지키고, 믿고 순종함
이기적이며 자기 일만 중히 여김	헌신 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인내하는 마음
선한 척하며 위선적	언제나 선을 심음
복음을 받았지만, 말씀을 의심하며 자신의 안위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함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의심하지 않음 담대하며, 전도에 힘쓰며, 선교에 힘쓰며, 이웃을 사랑함
복음은 내 인생에서 끝,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함	후손들에게 복음을 유업으로 남김, 악을 회개하며 선행을 배움
하나님의 사역을 멈춤	하나님의 사역에 힘씀

413 노력의 결과가 무엇일까?

나의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임을 알라. 내 마음의 평안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일을 지연시키고, 결국 함정으로 이끄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죄에 빠져 원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편 1 편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준다.

말씀 밖에서 열심히 한 모든 노력은 시간 낭비이며,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에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욕심은 불안과 초조함을 가져오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축복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라.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나의 기도가 응답됨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방법으로 기초를 쌓는 것은 모래 위에 건축하는 것이다. 싸움, 고소, 파괴, 소문, 살인, 분리, 실패, 그리고 죽음이 따른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행위를 달아볼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 1:4-6)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 10:24)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잠 15:8-9)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414 사탄의 음성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지식이나 경험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일할 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좋은 목자와 삿꾼 목자를 구별하는 것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에 여부에 달려 있다. 양은 그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나는 삿꾼 목자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에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심판의 날에 불에 타 재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한다. 설계자는 주님이시며, 우리는 건축하는 일꾼들이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심판의 날짜를 아는 이가 없다. 심판의 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1-39)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행 1:7)

415 뗏을 주의하라

사탄은 때때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뗏을 놓는다. 이때, 우리는 잠시 착각에 빠져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잠언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올바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인간의 판단만으로는 위험하거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올바른 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옳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호와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곧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대해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따르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신 때에 행하시며,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완전하고 옳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계획에 반대하고 거역하는 모든 계획은 무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흡수할 것이다. 회개하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 25:31-33)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 3:1)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신 6:3)

3) 멸하는 사탄의 계획

416 사탄의 계획

- 1) 말씀을 읽지 못하게 방해한다.
- 2) 말씀을 대적하게 한다.
- 3) 말씀을 들으나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 4)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 5)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게 한다.
- 6)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 7) 기도를 못 하게 한다.
- 8)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킨다.
- 9) 우선순위를 혼동하게 하고, 타협하게 한다.
- 10) 이기적, 자기중심적으로 인도한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일 2:4-5)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일 2:22-2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일 3:2-4)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2-3)

417 적의 계락을 알라

사탄은 말씀 밖에서 행동하도록 유혹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계획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찾고,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적의 계락을 모르고 따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은 반복적인 실패와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의도가 선하고 희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나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 4: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5-27)

내 백성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 2:13)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418 사탄의 계략 (A)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

사탄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보자. 사탄은 항상 배후에서 일한다. 사탄은 마음을 동요시키고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며 혼자서 일하게 한다. 사탄은 언제나 큰 것을 강조하고 유혹한다. 큰 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탄은 온갖 종류의 예술, 문화, 취미, 교육, 유행, 탐심 등의 형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시고, 사탄도 마찬가지로 지켜본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계략

1.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의심의 영을 보낸다.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7)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창 2:23)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5)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 3:7)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 3:10)

2. 삶의 우선순위를 교란해 우상숭배 하게 한다.
탐욕은 우상숭배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5)

3. 말씀을 대항한 행동을 정당화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롬 1: 28-32)

4.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는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행 5:38-39)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 13:17)

5.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6. 공중의 악한 영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한다.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1-12)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 4:8-9)

7. 사람들을 느슨하게 하고 게으르게 한다.
게으름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한다. 그
후에는 타협하게 하고 믿음과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되게 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꾀술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의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 4:20-27)

8.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 깨부르듯 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깨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곧게 하라 (눅 22:31-32)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눅 22:46)

9.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멈추게 하고 깨뜨리려고 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사탄의 계락을
 알고 승리하여야 한다.

419 사탄의 계략 (B) 죄를 정당화, 고통으로

1.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과 유혹에 빠지게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1)

2. 절제함을 잃고, 방종과 방탕에 빠지게 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엡 4:31)

3. 교만하고 거만하게 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번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고전 1:20)

4. 우리를 심판의 말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9-21)

5.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마음을 자극한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사 21:1)

6.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고통의 영을 보낸다.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삼상 16:14)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삼상 18:10-12)

7. 욕에게 했던 것처럼 시련과 시험을 준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 1:11-12)

8.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하고, 타락한 위선자가
되게 하고, 심판의 길로 가도록 한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

9. 고통과 자기중심적인 세대를 가져온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괘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 3:1-5)

10. 말로써 사람들과 환경을 오염시킨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 15:11)

11. 재앙과 질병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 3:5-6)

우상을 따르는 자는 우상이 가는 곳에 우상과 함께 갈 것이다.

이 우상의 세 가지 공통점은:

- 1) 나를 위하여,
- 2)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 3)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사탄의 종착지

420 쫓겨난 영들이 가는 곳

쫓겨난 영들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날까지 이 땅에서 물이 없는 곳(말씀이 없는 곳)을 찾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에 있어 예수를 대적하며, 정해진 때에 그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내 주위에 역사하고 있는 현상

- 1)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 2) 냉담함
- 3) 빛의 천사처럼 옴
- 4) 말씀에 어긋난 교리를 가르침
- 5) 잘못된 행동을 가르침
- 6) 교회 모임을 떠나도록 함
- 7)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지 않음
- 8) 하나 됨이 아닌 분열을 조성함
- 9) 복음 전파를 방해함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 열매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전 15:22-26)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